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본 연구는 2015 ‘자몽(自夢)’의 곁에서 동행하는 ‘몽실(夢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몽실’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식순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회

일 시 2016년 2월 16일 (화) 오후 2시~5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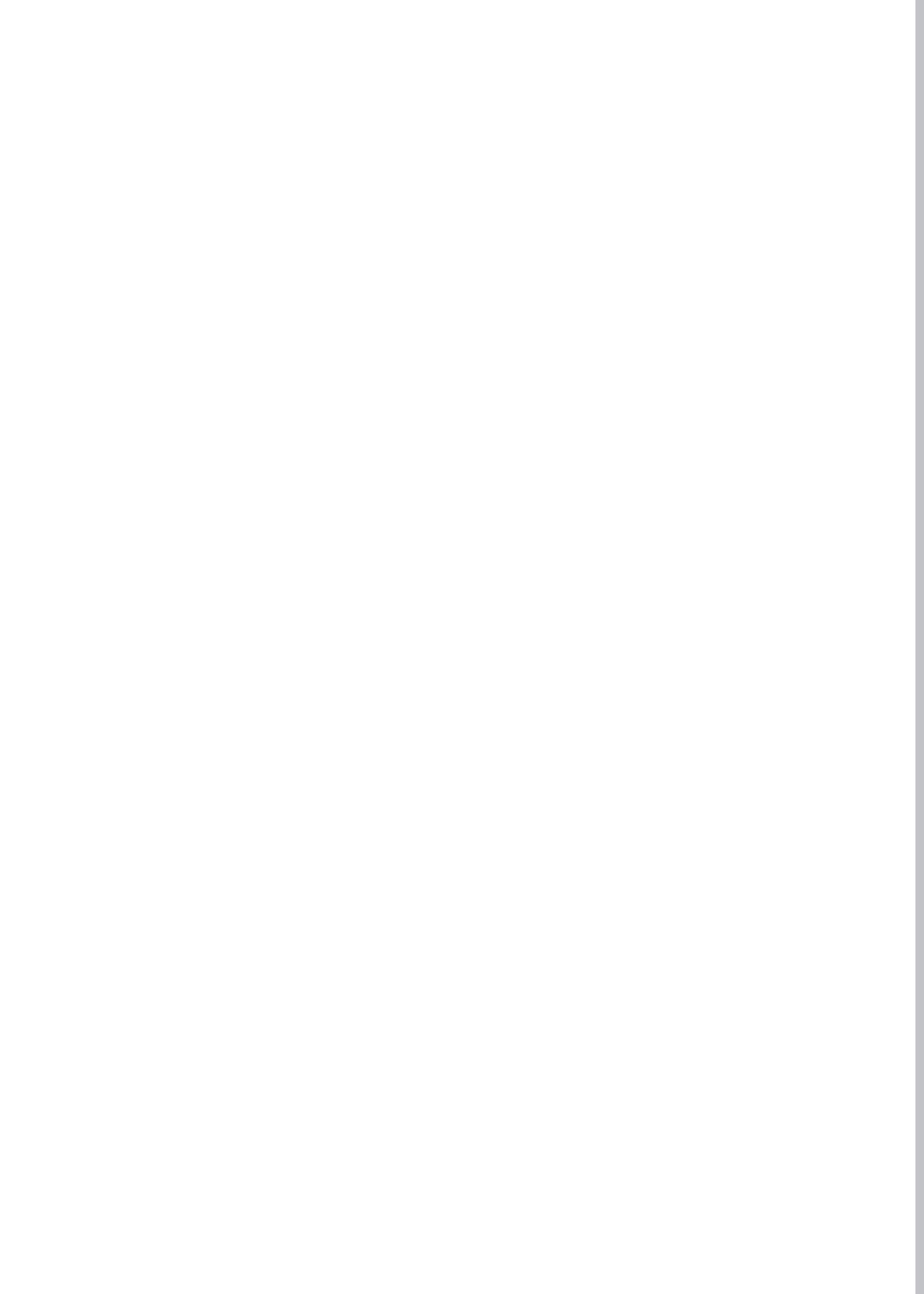
장 소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

사 회 날맹 (인권교육센터 '들')

오후 2시 ~ 2시 15분	서로 인사 및 몽실 소개
오후 2시 15분 ~ 3시 15분	[발표 1]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 발표자: 한날 (인권교육센터 '들')
오후 3시 15분 ~ 3시 30분	쉬는 시간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발표 2]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발표자: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종합토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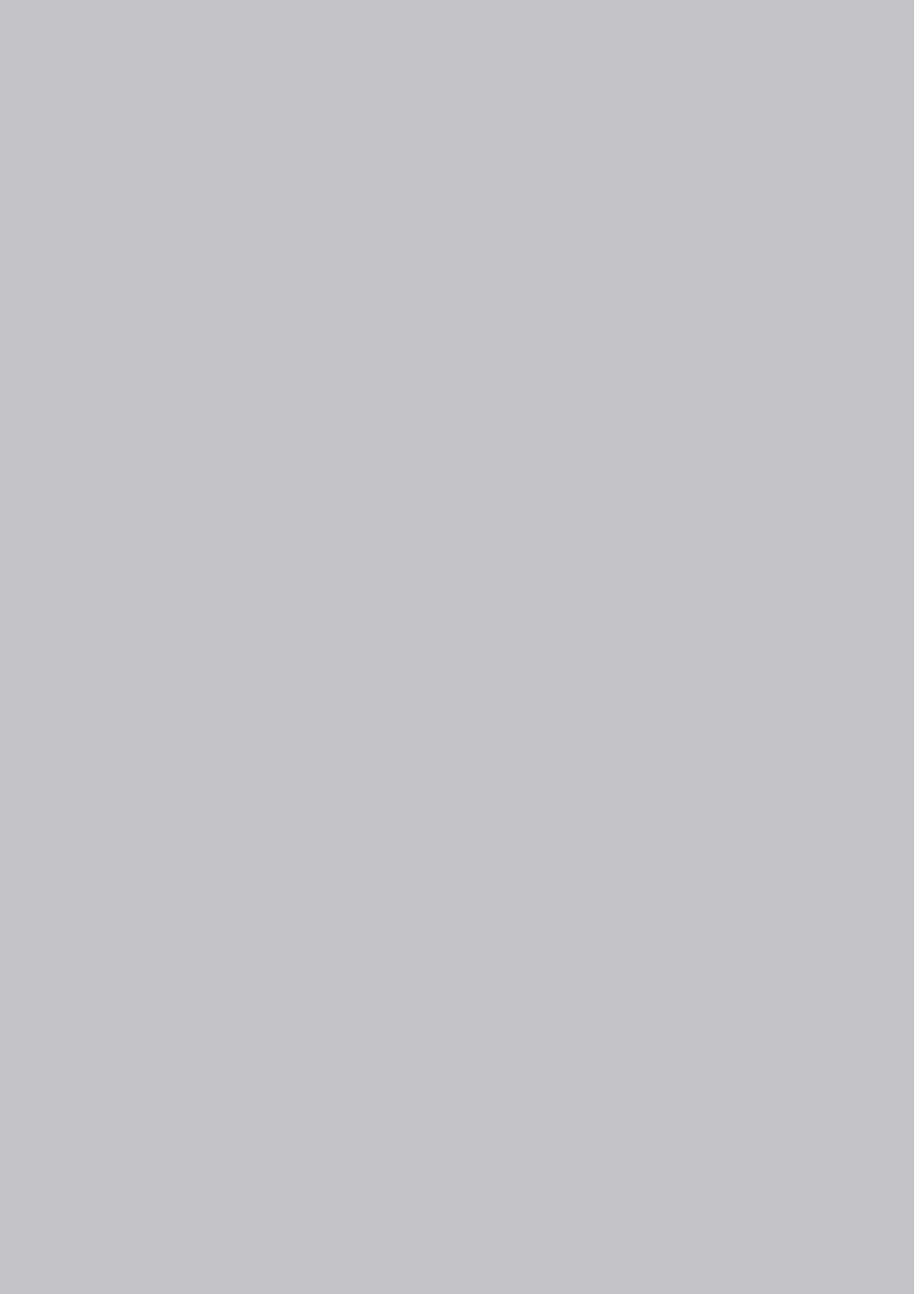
몽실 소개	7 p
연구에 들어가며	15 p
청소년 자립 개념 연구	19 p
청소년 자립 역량 연구	55 p
1. 기존 '위기청소년' 자립 척도의 한계	55 p
2. 왜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인가	69 p
3. 청소년 자립 역량이란 무엇인가	74 p
4. 나가며 : 청소년 자립 역량,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86 p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몽실 소개



몽실 소개

■ 인권교육센터 ‘들’ 소개

<인권교육센터 ‘들’>은 2008년 2월, 인권교육의 원칙을 버리면서 풍성한 실천을 일구어내기 위해 모인 인권활동가들이 창립한 인권교육 단체입니다. ‘들’은 인권교육이 인권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비롯한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연대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통해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이 인권교육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연대하고 함께해온 활동이 바로 청소년인권 활동이었습니다. 인권교육이 인권의 현실과 결코 따로 갈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 연대하면서 청소년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등에 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인권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은 청소년인권의 관점과 실천의 경험을 가지고 ‘자몽’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단체로서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내실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자몽과 함께한 ‘몽실’ 소개

‘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자몽’을 튼실하게 만들고, ‘자몽’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몽실’이라고 이름 했습니다. 모니터링의 본래 목표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몽실(夢實)’은 형식적인 평가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검사 또는 감시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몽’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만나고,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청소년자립에 대한 더 풍부한 이야기와 경험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몽실’은 ‘자몽’ 사업과 함께 연구, 모니터링,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몽’ 사업들이 진행하고 한데 모아준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금 녹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 ‘몽실’의 목표

- 개별 사업 현장에 지속적인 피드백(소통과 연결)을 제공해 사업 주체가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자립을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실제 삶과 경험을 반영한 자립의 개념과 자립 지원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적·사회적 과제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 사업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련의 사업 참여 과정이 서로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본 사업의 결실들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더 많은 기관과 모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정리하고 연구 발표회를 기획했습니다.

■ 자몽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명
일하는학교	학교밖청소년의 진로동기향상을 위한 돌봄일경험 프로젝트
교육공동체 제프	자아독립 프로젝트
성북 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늘푸른자립학교	“‘I’DREAM” ‘나 들여다보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립기반마련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커피동물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매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커피동물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광주 보호관찰소	‘멘토·멘티와 함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다’
대자원	보호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자립지원 서비스 『참 좋은 내일을 위해』

■ 자몽 참여 기관과 ‘몽실’의 만남

| 교육 및 네트워크 모임 개요 |

일시	장소	구분	내용
3월 13~14일 종일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교육	· 오리엔테이션 (서로 소개 및 친목 도모) · 청소년의 삶과 인권 기본 & 심화 교육
4월 29일 14~17시	이룸센터 다목적실	네트워크 모임	· 3월 워크숍 평가를 통한 향후 교육 방향 도출 · 기관별 사업 진행 상황 공유 · 자기 점검 질문 목록 초안 논의
5월 27일 13~18시	이룸센터 다목적실	교육	· ‘위기’개념의 복합성 이해 (빈곤, 가족, 교육, 노동을 중심으로)
7월 29일 14~17시	이룸센터 다목적실	네트워크 모임	· 몽실 팀의 현장 방문 결과 발제 · 기관 상호 간 경험 및 질문 교류
9월 23일 14~17시	서울 NPO 지원센터 교육장2	네트워크 모임	·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 심층 이해 · 자립 개념을 바탕으로 자가 점검 질문 목록 개발
10월 28일 13~18시	서울 NPO 지원센터 교육장2	교육	· 규칙/사회적 규범을 둘러싼 고민 나누기 · 청소년과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체크리스트 · 자립 지원을 방해하는 제도/사회적 한계

| 워크숍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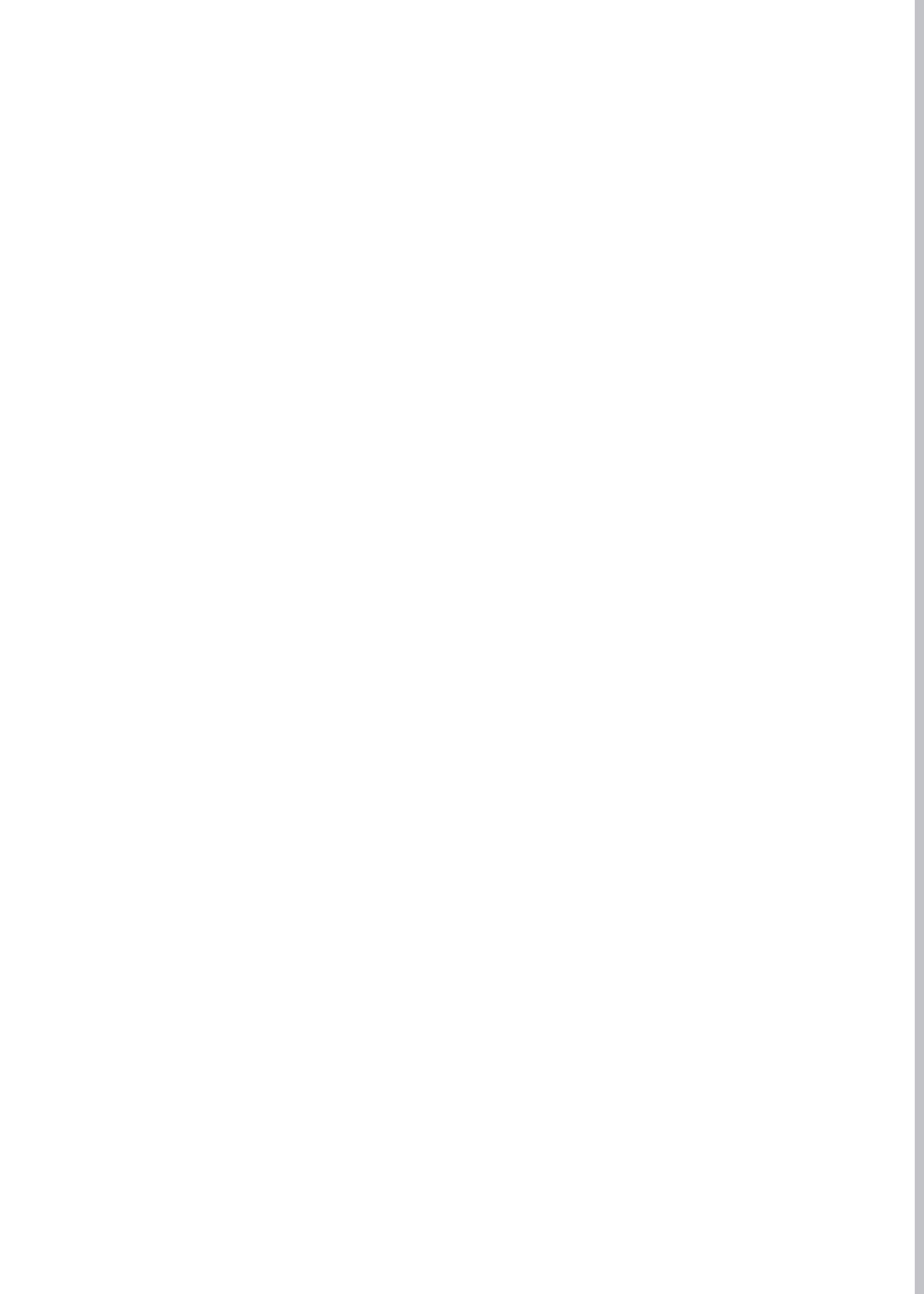
일시	장소	구분	내용
8월 21~22일 종일	마리스타 교육관,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관	중간 보고 워크숍	· 기관들의 자몽 사업 발표 · 친목과 교류의 시간 · 몽실의 대안적 자립 개념 발제 및 토론
12월 15일 13~17시	서울 NPO 지원센터 교육장1	최종 보고 워크숍	· 기관들의 자몽 사업 발표 · 하반기 현장 방문 결과 공유 · 함께 달기 & 덕담 나누기

| 상반기 현장 방문 개요 |

기관명	일시	방문자	내용
일하는 학교	6월 2일 13:00~16:00	배경내(몽실) 이호연(몽실) 이선미(재단)	· 담당 실무자 면담 · 참여자 기획회의 참관 · 사전교육 부분 참관
교육 공동체 제프	6월 18일 14:00~16:00	김차연(몽실) 문명진(몽실)	· 교사(2인), 대표(담당 실무자) 면담 · 목재 문화 체험장 방문
성북 청소년 자활지원관	6월 23일 17:40~20:20	박민진(몽실) 김차연(몽실) 이선미(재단)	· 담당 실무자 면담 · 청소년인문학교실 3차시 수업 참관
늘푸른 자립학교	6월 29일 14:30~16:30	유윤종(몽실) 문명진(몽실) 이선미(재단) 이현진(재단)	· 교사(3인, 담당 실무자 포함), 교장 면담 · 문화예술 수업 5개 프로그램 참관
커피 동물원	[1차] 7월 17일 20:00~24:00 [2차] 7월 22일 17:00~19:00	박민진(몽실) 이선미(재단)	· 담당 실무자 면담 · 집단 멘토링 참여 관찰
광주 보호관찰소	7월 24일 14:00~15:20	유윤종(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직업 체험 프로그램 제과제빵 참관
대자원	8월 7일 10:00~12:00	유윤종(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경제 교육 프로그램 참관

| 하반기 현장방문 개요 |

기관명	일시	방문자	내용
일하는 학교	11월 25일 16:00~18:00	배경내 (몽실) 문명진 (몽실)	· 하반기 사업 중 면접 코칭 참관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교육 공동체 제프	11월 6일 16:00~17:20	유윤종 (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성북 청소년 자활지원관	11월 10일 18:00~19:30	문명진 (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늘푸른 자립학교	11월 12일 15:00~16:30	박민진 (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커피 동물원	11월 19일 11:00~12:00	유윤종 (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광주 보호관찰소	11월 20일 14:30~17:00	유윤종 (몽실)	· 자몽 멘토링 프로그램 해단식 참관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대자원	11월 20일 15:30~16:40	박민진 (몽실)	· 담당 실무자 면담 · 사업 참여 청소년 인터뷰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연구에 들어가며

연구에 들어가며

인권교육센터 ‘들’은 현장성을 갖춘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람들이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쏟아져 나온 거리에서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걱정적으로 토해낸 삶의 이야기로 인권교육의 기둥을 세운다. 기둥만 세운다고 집이 완성되진 않는다. 교육 참여자들이 나와 닮은 타인의 이야기에 반응해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의 벽돌을 쌓는 것. 그리하여 다른 실천을 기획하고, 변화를 연습하는 장(場)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현장성이고, 교육을 진행하는 ‘들’에겐 강의실이 곧 인권 현장이기도 하다.

교육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늘 소중한 경험이다. 허나, 한 두 차례 단기적 만남으로 일궈낼 수 있는 변화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1년 동안 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의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은 ‘들’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두려움과 설렘 모두를 품고 ‘몽실(夢實)’을 시작했다.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좋은’말들의 성찬으로 모임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립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필요했다. 실무자들과 함께 나눌 질문과 말을 버리기 위해 자립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병행했다. 잠정적인 결실을 실무자들과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또다시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물을 최종 정리했다.

왜 우리는 인권과 자립이 만나길 바랐던 것일까. 연구를 시작할 때는 모호했던 마음이 연구 막바지에 이르자 보다 선명해졌다. 인권은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속으로서의 사회, 개인의 삶과 사회적 연대를 뒷받침할 책무를 가진 국가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언어다. "외따로 떨어져 황무지에 홀로 서있는 사람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는 과연 행복한가?", "구성원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국가는 사실상의 ‘기능정지’상태 아닌가?"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탄생시켰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누구/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거나, 없는 셈 처지나’에 주목하고, ‘날날으로 쪼개진 무수한 권리들의 나열’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권리들의 연결’을 조직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의 관점에서 기존의 자립 개념과 자립 지원의 방향을 살피자 커다란 모순에 부딪혔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의존’은 마치 불완전한 인간의 징표처럼 여겨진다. 삶에 도래하는 위기는 사회/구조로부터 기인하는데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를 단정 짓고, 그 틀에 맞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곧 자립으로 정의된다면, 인간은 시스템을 지탱하는 부속품이나 한낱 자원으로 환원되고 만다. 인권도, 자립도 결국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이자 담론임을 우리는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스스로/함께 자신의

삶의 지향을 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상태가 ‘자립’이라면, 삭막하고 두려움 가득한 자립의 언어에 인권의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기존의 담론, 제도, 실천들은 대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일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주류적 인식에 머물러있고, 정작 지원의 주체여야 할 청소년들이 자립 ‘시켜야 할’ 대상으로 위치되곤 한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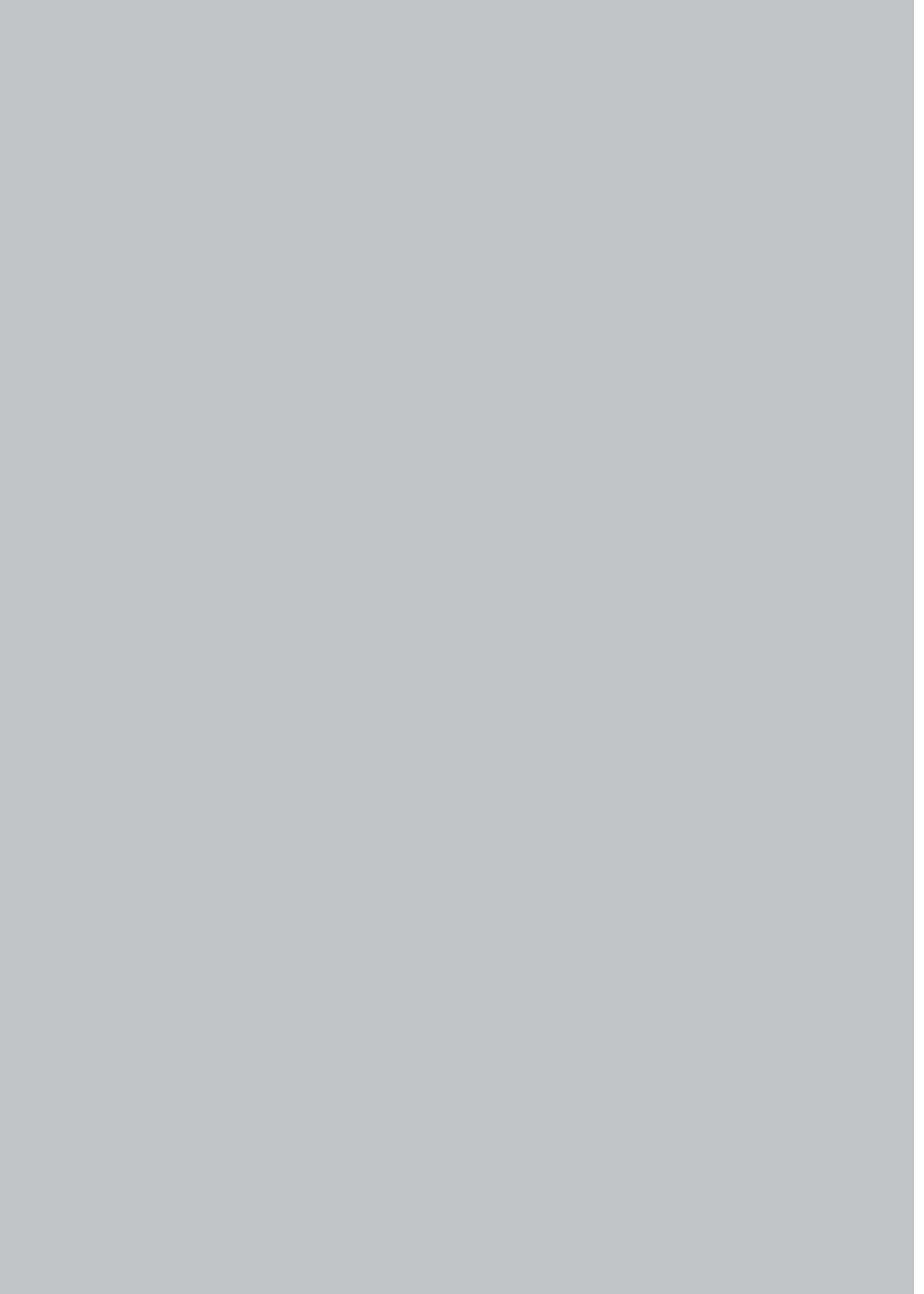
“인권 좋지만, 저 하늘에 있는 느낌이고, 자립은 당장 현실인데...”로 시작하는 실무자 분의 솔직한 토로에 인권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응답은 무엇일까. 인권은 정답을 추구하는 언어도, 오류 없는 말끔한 실천을 강요하는 언어도 아니다.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에 뿌리 내려, 발생하는 딜레마에 주목하고, ‘다른 실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만들고 싶다. 현장과 현장 사이를 연결해 흩어져 있는 고민과 실천들을 너른 조각보처럼 꿰고 싶은 욕심도 있다. 개별 현장에서의 고군분투로 버텨온 실무자들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자립 지원을 방해하는 사회/제도적 한계들을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데 인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잠정적인 결론이나마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물을 생산했다.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은 기존의 자립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립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글이다.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은 기존 ‘위기청소년’자립 척도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서 청소년 개개인이 성취해야 할 ‘기술’또는 ‘과업’으로서의 자립 척도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역량(capability)’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역량은 청소년을 어떠한 삶의 지평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청소년 자립 개념 연구



청소년 자립 개념 연구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

들어가기: 두려움, 비틀거림, 자립의 마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쓰기를 힘들어한다.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새하얀 지면은 부담감을 넘어 공포마저 안겨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글쓰기 자체보다 글을 쓰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말로 그럴 듯하게 얼버무렸던 것을 글로 적다보면 적나라하게 자신의 민낯과 감정이 드러난다. 부끄러움을 견디며 문장들을 이어간다 해도 천근만근 몸과 마음이 무거워진다. 자신이 쓴 글은 스스로를,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며, 글이 읽힌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마냥 회피하고 싶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숙명처럼 영덩이를 붙이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글쓰기는 본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그저 품고 견딜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데 매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커피 동물원을 거쳐 갔던(거쳐 가는 중인) 연구 참여자들이 집단 멘토링 자리에서 자립과 관련해 가장 많이 꺼내든 말이 ‘두려움’이라고 들었다.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조차 이렇게 두려운 일인데, 이제는 홀로 네 삶을 써내려가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홀로 짊어지라는 듯한 냄새를 짙게 풍기는 자립이라는 단어가 어찌 무겁고,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본원적 두려움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특히나 위기적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복잡한 결을 지니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¹⁾ 혹은 ‘실부른 행동을 바로잡아 계몽시켜야 하는 존재’²⁾ 취급을 받다가 등 떠밀리듯 세상의 들판에 내팽개쳐진 느낌. 이것이 기존의 자립 개념이 청소년들에게 가닿는 방식일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비유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풀어가고자겠다. 글을 쓸 때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는 달라진다. 투덜거리며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동료ya 있을 때, 답이 정해져 있는 경직된 평가 또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 우리는 한층 수월하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1) 청소년 관련 대부분의 제도와 정책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전제 아래 구성되어 있음.

2) 비행 청소년, 혹은 위기 청소년이라는 분류체계가 성립된 바탕.

중요한 건 충분히 비틀거릴 수 있는 시간이다. 막상 중요한 일이 닥쳐올 때, 온갖 ‘딴 짓’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불안과 후회가 뒤섞인 상태로 ‘쓸데없는 짓’을 실컷 한다. 최종 목표와 결과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는 아주 무용한 시간이며, 비효율의 극치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충실히 통과해야 비로소 책상 앞에 앉을 마음이 생긴다. 내 앞에 놓인 문제와 마주서겠다는 마음, 이 시간과 부대끼며 한 번 견뎌보겠다는 마음, 그저 써보겠다는 마음. 이것이 자립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립 개념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결국 삶 속에 떠도는 두려움을 포착하고, 설명하고, 다르게 정의해보는 과정이었다. 신자유주의라고 통칭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두려움은 어떤 식으로 증폭되고, 흘러가며, 사람에게(줍게는 청소년에게) 좌절을 겪도록 만드는가. ‘쓰레기가 되는 삶들’³⁾마냥 무의미한 상태로 남아버린 존재, 경험, 시간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홀로’가 아닌 ‘스스로 또 함께’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 하나 쉬운 질문은 없었지만, 갈팡질팡 우리가 고민했던 흔적을 나눠보고 싶다. 과거의 고정된 체제와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유동하는 현실, 이에 영향을 받는 유동하는 삶의 문제를 글 서두에 풀 것이다. 이어서는 기존 자립 개념의 한계와 공백을 짚으며, 자립을 바라보는 대안적 시선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위의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영역의 글들을 참조했다. 참고 문헌의 서지사항은 글 맨 뒤에 실었다. 글로 남겨지지 못한 이야기는 초청 간담회⁴⁾와 청소년 3명⁵⁾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2015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에 함께한 8개 기관⁶⁾과 2015년 2월 이후 네트워크 모임, 교육, 현장 방문 때 상호작용하며 나눈 대화 역시 이 글에 녹아있다.

모실 팀이 집중 인터뷰한 연구 참여자 3명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⁷⁾

이름(가명)	연령 ⁸⁾	성별	현재 거주상태
서원	만 20세	여성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
곰곰	만 19세	여성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
미진	만 19세	여성	자취(친척집 인근)

3) 지그문트 바우만의 책 제목. 생산과 소비 등 ‘숫자’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잉여’로 취급되며,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마냥 인식되는 상황을 빗댄 것임.

4) 당사자의 자립 생활 운동이 아래로부터 활발히 진행 중인 장애 영역의 김도현 (노들 장애인 야학 활동가이자 장애학 연구자)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설 열림터(쉼터) 활동가였고, 그 경험을 단행본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로 함께 엮어낸 나랑(김지현)을 만났다.

5) 엄밀히 현재 연령은 10대가 아니지만, 이들의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었다. 또한 3명 모두 처한 상황/조건상 자립을 고민하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6) 사업 지원을 받은 7개 기관(늘푸른 자립학교, 교육공동체 제프, 성북청소년자활지원관, 커피동물원, 일하는 학교, 대자원, 광주보호관찰소) 및 도움 기관으로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가 함께 했다.

7) 인터뷰 전문을 본문에 담지 못했다. 논의의 맥락과 닿아있는 내용을 발췌 수록했고, 다만 연구자의 분석 중 큰따옴표로 인용한 것은 인터뷰 중 연구 참여자가 직접 사용한 표현임을 미리 밝혀둔다.

8) 인터뷰 당시 (2015년) 기준

비상이 일상: 불확실하며, 임시적이며, 유동하는 삶

2015년 2월에 진행된 자몽 사업 협약식의 풍경 중 ‘유동성’을 설명한 수 있는 장면이 있다. EXIT 버스⁹⁾를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의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활동가가 헐레벌떡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곳은 비상이 일상이군요.”라며 다른 기관의 한 분이 위로를 건넸다. 일상이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 평범하고, 지루하며,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일탈을 꿈꾸며 일상에 균열이 생기길 도리어 기대한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자. 일상이 없는 삶은 어떠할까? 지루하지만 안정적이고, 뻔하지만 예측 가능한 그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며, 바짝 긴장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함을 뜻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일찍이 여러 저서들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유동성을 꼽았다. 유동성이란, 근대사회를 작동시켰던 구조·제도·풍속·도덕이 해체되면서 가변성과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는 국면을 일컫는다. 대표적 저작인 『유동하는 공포』(한규진 옮김, 산책자, 2009)에서 바우만은 동적이고 정처 없으며 중심점이 없는 공포, 사회 안에 안개처럼 번져있는, 물처럼 스며있는 사회적 불안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따라서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인생이란 끝없는 수색정찰의 과정, 그리고 압박한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 만나고 있는 이른바 ‘위기 청소년’¹⁰⁾의 ‘위기’는 이 유동성에서 비롯된다. 지난 자몽 5월 교육에서 다뤘던 질문들(‘무엇이 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교육(학교 안팎)에서의 좌절을 만드는가’, ‘무엇이 불성실한/무책임한 일꾼을 만드는가’)이 바로 이 ‘위기’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가족도, 학교도, 일터도, 그것을 뒷받침해 왔던 규범들도 모두 해체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친아버지의 경제력과 친어머니의 돌봄으로 지탱되는 가족은 이제 손에 꼽힐 정도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 불확실한 오늘을 임시적인 대책들로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위기 청소년의 삶이다. 목적의식적으로 ‘학업중단’(학교 중단)과 ‘대안적 학업으로의 이동’(대안학교, 유학, 홈스쿨링 등)을 결정한 청소년을 제외하면, 대개 빈곤, 가족의 파경이나 가족적 돌봄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추방, 학교로부터의 추방(부적응이나 탈락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는 불림) 등을 경험하고 있다.

9) 38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식 청소년 센터

10) ‘위기 청소년’이라는 이름 짓기는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무엇을 위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며, 자칫 사회 문제의 원인을 특정 청소년 집단의 탓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낙인 효과의 문제 역시 자몽 네트워크 모임에서 짚어진 바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아직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곰곰 : 아빠랑 친엄마랑 4살 때 이혼했어. 아빠가 둘째 고모에게 나를 맡겼는데, 한참 신혼 때였고, 그쪽도 애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는 **완전 눈치덩이**였어. 그래서 좀 많이 시달렸어. 고모부가 그 때는 뭐만 하면 화를 내고, '재 언제 데려가냐'고 소리를 질렀어. 늘 가정 폭력 속에 있어서 고모부의 아이들과 나는 바들바들 떨면서 살았어.(...) 그 때부터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툴러졌어. (...) 초등학교 입학 할 때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아빠는 이미 (새엄마와) 동거 중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어. (...)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에게 심터 입소를 권유했었어. 내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에게 **다짜고짜** 친엄마를 소개해줬었어. (...) 고모부랑 살 때도, 집에서 살 때도 맨날 눈치를 보고 많이 불편했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의 공간이 없고. 너무 힘들었어.

미진 :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들어갈 때, (캐나다로) 오라고. 저는 되게 가기 싫었거든요. (친아빠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라고 하니깐, 그것도 서울 어디에 있는 데를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캐나다로 가라고 하니깐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외할아버지랑 이모들이랑 삼촌이 내 마지막 편인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랑 삼촌들이랑 가라고 하니깐 막 배신감 느끼고. 그 와중에 '네 아빠인데 왜 안 가냐고. 본인들도 나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캐나다를 가게 됐죠. 캐나다 가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빠 없이 **생판 처음 보는** 동생이랑 거기 새 엄마랑 살았어요. 거의 **쥐죽은 듯이** 지냈죠. 착하신 분들 같긴 했는데 솔직히 달갑진 않을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아빠랑 집을 합치고 살면서 (...) 그렇게 한 8개월인가 10개월 지냈어요. (...) (캐나다에 다시 못 간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왔을 때 '웬일로 왔냐고 그랬어요. 제가 온다는 말도 안 하고 보낸 거였어요. 저는 다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곰곰은 4살 때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후, 7살 때까지 고모 집에서 자랐다. 다혈질에 폭력성이 짙었던 고모부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일상이 반복됐다. 7살이 되면서 새로 가정을 꾸린 친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지만, 새엄마와의 갈등과 언어폭력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진은 친모와 새아빠, 이복동생과 함께 14살 때까지 생활했다. “맨날 맨날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새아빠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학교생활이 의미 없게 느껴져 결석이 잦기도 했다. 14살 되던 해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누가 데려갈 것인지” 다툼이 있은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16살 여름,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친부가 재혼해 살고 있는 캐나다로 넘어가 8개월~10개월 정도 살았다. 새엄마와의 불화 등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조부모와 살았다.

곰곰과 미진의 경험은 현재의 가족이 결합-해체-재구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가족이 구성되는 과정에 청소년들은 주도권이나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다짜고짜”, “갑자기” 또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살게 되고, “딸린 식구”이자 “눈치덩이”로서 늘 “쥐 죽은 듯이” 주변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활 반경이 달라진다는

걸 동시에 뜻한다. 갑작스레 전학 간 학교가 “텃새”가 심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는 곰곰의 이야기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관계 전반의 불안정성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삶은 이토록 유동적인데 반해 사회적 ‘시선’과 ‘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규범에 머물러있기도 하다. 곰곰이나 미진과 같은 가족 형태는 여전히 결혼가정/비정상가정이라는 사회적 비난 혹은 동정의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괴리 속에서 위기 청소년의 삶은 제한적으로밖에 해석되지 못하고, 때때로 청소년들 스스로 ‘이상적 가족’, ‘이상적 학교’, ‘이상적 청소년기’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곰곰: (19살 때 만난) 파트너가 외로움이 많고, 그 친구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어서 그 친구도 나를, 나도 그 친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어. (나이를 속이고) 같이 공장에 다녔고, 고시원에서 살았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심했지만, 쉼터는 규칙이 많고 답답해서 가기도 싫었어. (...) 우리가 살던 고시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어. 그러다 어떤 조선족 아는 남자가 내 파트너에게 ‘지방에 일을 가게 됐는데 집을 정리하지 않겠다, 그런데 집이 좀 관리가 되길 바란다, 너네 어려운 것 아니까 내가 올 때까지 들어와서 살아라’고 제안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지방에 갔던 그 남자가 망한 거야.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올라왔고,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살던 고시원은 이미 정리했고. 그러다 어쩌다보니 원룸에 여자 2명, 남자 1명이 동거하기 시작했어. 하필 또 안산 지역 공단이 망하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어. 일주일에 2~3번 일당 받으면서 일하는 정도였어. 그 남자는 망해서 멘붕이었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곰곰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아웃팅¹¹⁾으로 인한 학교 폭력, 가정 내 불화가 “삼위일체”로 몰아친 16살 말에 처음으로 집을 나와 울산으로 갔고, 말 그대로 “흘러 흘러”수도권인 안산으로 19살에 진입했다. 사흘 정도 머문 쉼터도 있었고, “왔다 갔다”1년 넘게 머문 쉼터도 있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거나, 애인/친구와 일시적으로 동거하기도 했다. 쉼터가 갑갑해 거리 생활을 한 적도 있는데, 탈가정 후 거리에서의 삶은 안정적 주거 공간의 부재(주거는 ‘집’이라기보다는 하룻밤 잠을 청하는 곳), 안정적 생활 기반과 소득 획득의 불확실성, 해고와 잦은 이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 쉼터 규칙의 엄격함과 통제를 거부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 생활리듬의 불규칙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곰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녀 주변인들의 삶 역시 임시적이며, 유동적이다. 서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함께 함’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단단한 결속을 맺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에 불안한 결속은 때때로 배신, (성)폭력 등의 형태로 일그러지거나, 깨지기도 한다.

11) 아웃팅 (Outing): 자신의 의지나 동의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

유동하는 자립: 유동성에 내몰리는 것 vs. 유동적 시간을 보장받는 것

삶의 조건이 유동적이기에 ‘위기 청소년’의 자립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유동적인 사회로부터 비롯된 위기에 대한 해법이 ‘과거’의 고정된 제도와 규범으로의 복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위기 청소년’의 ‘자립’ 혹은 ‘자활’의 개념은 과거 지향적, 결과 지향적, 단선적, 고정적인 것이기에¹²⁾ 이들이 간파하는 불안이나 삶의 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유동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현장 실무자(복지사)에 대해 청소년들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나 단계별 성과를 강요받는다라는 반감을 갖기 쉽고,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모자라고 문제적이어서 실패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서원: (인생에서 크게 바뀌었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나요?) 제일 큰 거는 집을 나왔던 거. 쉼터에 오게 된 거. 쉼터기관에서 나왔을 때. 퇴소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 막막했던 거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나이가 찼다고 나가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원: 쉼터에 어렵게 적응을 했는데 다른 데 가는 게 무서워서 맴도는 애들이 많아요. 밖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드니까 쉼터로 다시 들어갔는데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니까.**

서원은 16살에 집을 나와 17살에 쉼터에 처음으로 입소했다. 이후 쉼터에 살거나 애인/친구와 동거를 해오다가 20살이 되는 해 쉼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자 퇴소했다. 그 후 갈 곳이 없어 ‘거짓’으로 성매매여성을 위한 성인쉼터에 들어가기도 했다. 안 그래도 유동적인 탈가정 청소년의 삶에서 쉼터 규정을 어기면 언제든 퇴소조치 될 수 있다는 것, 일정 기간이 지나면 쉼터를 나와야 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삶의 유동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퇴소 후에 주로 사는 곳도 고시원과 같은 임시 주거 형태이고 일터도 불안정(조건이 열악하거나 쉽게 해고당하거나 폐업으로 실업하거나)한 상태이며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휴학과 돈벌이를 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최일심(2013)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 10명 중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이는 겨우 1명뿐이었다. 매우 불안정한 경제적 자립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수반되기도 한다.”¹³⁾고 지적한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데 급급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라는 자기최면으로 지금보다 나아진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는 삶. 또는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가 되는 삶. 이것이 유동성의 시대에 우리가 강요받는 삶의 양식이 아닐까. 그러나 충실한 오늘 하루 없이 나아진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12) 이는 자립 지원에서 가정/학교로의 복귀를 중시하는 경향, 출석률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 연결성 없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단계적으로 나열하는 현상 등으로 나타남.

13) 최일심, 「여자 가출 청소년 자립 과정 연구: 청소년 쉼터 생활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13, 146쪽.

삶은 과거-현재-미래로 딱딱 끊어지지 않으며, 수많은 오늘이 쌓여 내일이 만들어질 뿐이다. 분절이 아닌 연속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안정성이다. 안정적인 주거, 소득, 관계, 물질·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등이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일심(2013)의 연구 역시 “이상의 사례에서 가출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사회복지적인 접근과 사회적 자원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준다면 성공적으로 자립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자립지원 체계들이 구축되고 확산되어야¹⁴⁾함을 강조하고 있다.

삶의 안정성을 고려해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고민할 때 중요한 건 그/녀들의 삶의 역사와 그로 인한 생활패턴을 탄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들락날락 하는 행위를 비행의 징표로 간주하거나, ‘순간적인 자유만을 탐닉하는’ 품성의 문제로 해석하곤 한다. 그런데 서원의 이야기처럼 사실 청소년들도 거리에서 컴퓨터로 들어갈 때, 또 컴퓨터를 나와 새로운 곳으로 가야할 때, 새로운 삶의 시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새로운 공간과 삶의 형식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새로운 삶을 스스로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유동적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다. 커피 동물원이 새로 일을 시작한 청소년은 오픈(아침 출근)이 아닌 마감으로 업무 시간을 배치하는 것, 중간에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겨 견업을 하게 될 때 당장의 퇴사보다는 상호 협의 하에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도를 하는 것, 늘푸른 자립 학교가 들쭉날쭉한 출석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꾸리고 각자 개인에 맞춰 진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이 유동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 정상/비정상을 가르는 잔인한 잣대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 아티카의 산적으로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크기만큼 사지를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보통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를 빗댄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이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이들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 자립을 강조하는 국가나 일부 기관들의 목표 등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이것이 정상 상태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잣대가 확고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선택, 장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장면들의 주인공은 ‘위기 청소년’인 경우가 흔하다. 왜 기본적인 예절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가, 왜 담배를 피며 폭력 행위를 일삼는가. 왜 착실하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가. 이 책망 섞인 질문에 우리는 또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들은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대답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지 모른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이기 때문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협박 앞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행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일까. 우리는 침대 그 자체를,

14) 최일심, 위의 글, 148쪽.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그 잣대를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고정된 잣대가 만들어진 맥락과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곰곰: 조건 만남 했던 것을 (18살 때 씬터 소장님의 권유로 경찰에) 진술하고 고소했는데, **्ष터는 보호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어. 내가 직접 안하면 경찰이 한다고 하더라고. 엄청 고민하다가 집에 연락해 직접 말했는데, 부모님이 알고 난리가 났었어.

곰곰: (19살 때 친구가 동거인이었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겪은 후) 증거도 이미 없었고 나도 경황이 없었어. (...) 경찰관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이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 나는 목격자 진술을 하고, 개는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 (...)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고 부모님 부를 때 그 친구가 감정이 격해졌어. 우리는 분명 확인을 했었어. 부모님이 오시냐고, 보호자가 와야 하냐고. 괜찮다고 했었어. **내가 진술서를 쓰니까 미성년자인 걸 알게 된 거야.** 그 때부터 말이 달라졌어. 진술서 다 쓰니 **부모님 와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재(친구)를 되게 나쁜 애로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고깝고 듣기 싫고, 이런 게 공권력인가 싶었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 그때부터.** 그 친구가 화가 나서 난동을 부렸어. 개를 저지하면서 **경찰이 ‘못 배웠으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저지했어. 성폭력 전담팀이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몰라.

곰곰: (보호자 부르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나의 경우에는 내가 가출한 이유는 그 가정이 싫어서 나온 것인데 **그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케이스는 **가정 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곰곰은 지금도 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가족이라고 느끼기 보다는 한 때의 “동거인” 정도로 그를 생각한다. 더군다나 집을 나와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 자신의 조건 만남을 부모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곰곰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곰곰은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씬터의 관계자를 대리인(보호자)으로 지명하고 싶었지만, 경직된 보호주의에 입각한 법정대리인 제도 아래에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집이 싫어 나온 이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변화된 조건 없이 다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임에도, 부모가 자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정상이자 당연하다는 전제는 탈가정 청소년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성)폭력을 경험했고,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에도 부모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차라리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곰곰은 성폭력 전담팀이었던 담당 경찰이 자신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증거를 운운하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문제가 취급을 하며, “못 배웠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모욕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맥락은 무엇일까. 탈가정 상태,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성적 경험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적 틀에서 곱곰과 그녀의 친구는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로 탈바꿈된다. 나아가 경찰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그녀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입장에서 위협이자 문제가 된다. 정상성을 빗겨간 존재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권력은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순리에 맞게 돌아가는 듯한 이 세계의 룰에 뭔가 오류가 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 청소년은 말 그대로 ‘이물질’이며, ‘(떳떳하게) 등장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규범과 체제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체제의 위기를 온 몸으로 감당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문제아’라는 표식을 달고, 집단화된 부정적 이미지로 이들을 묶어내곤 한다. 현장 방문 때, 위기 그룹만 따로 모아 자립 지원 사업을 하는 모델이 낙인과 기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일하는 학교 교사분의 이야기 역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집단 자체를 비정상이라 단정 짓는 방식의 정점에는 이들의 상태를 병리화(장애화) 하는 흐름이 놓여있다. 지원 시스템 체계에 들어갈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심리검사나 정신 건강 검사가 실시된다. 정서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지의 체크리스트가, 관리 중심의 정신과 치료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진: (캐나다에 있는) 새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개 정신 이상한 거 같으니까 정신과에 보내라고 쌍욕 쌍욕 하면서 싸웠어요 할머니랑 전화로. **저보고 우울증이라요.** 그래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었어요 하루에 한 알. (...) 애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보건센터 가자는 것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 보였죠. **나는 지금 멀쩡한데** 똥 거길 가냐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래 미친녀들은 자기가 미쳤다고 안 말한다고.** 몰아가고. **아 진짜 검사를 해 보니까 우울증이라요.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검사 결과를 믿지 내 말을 믿겠어요.** 약을 한 2개월 먹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그 병원에 가서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게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고 **그냥 보내요.** 뭐예요. 그냥 돈 낭비하고 저는 아무런 효과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안 갔어요. 짜증나서.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신과 의사도 완전 성의 없어. 뭘 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미진의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는 그녀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원치 않는 이주였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돼버린 사람들과의 일상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새로운 동거인들과 “별로 말 섞기 싫고 부딪치기도 싫고 그래서 방에만 쳐 박혀 나오지도 않고 밥 먹을 때만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건 지극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며,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다. 이를 “미쳤다고”,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리는 순간 문제는 간편해진다. 그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전환된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의료 권력 앞에 위기 청소년들은 이제 ‘환자’가

되고 있다.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우울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울증뿐만이 아니다. 산만한 아이들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은 이제 ADHD 환자로, 어른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규칙에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은 반항 장애로 분류된다. 학교와 시설, 국가가 요구하는 몸과 정신을 갖추지 못한/않은 존재들을 향한 은밀한 폭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집단의 몸과 정신을 문제 삼는 정상화(치료) 패러다임의 역사적 형성과 비판은 장애학(장애운동)의 통찰을 빌려 깊이 살펴볼 수 있다. 몽실 초청 간담회에서 김도현은 서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이 본격화된 후 대략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장애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재활’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재활에 대한 지향은 197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이름이 바로 ‘정립회관(正立會館)’인 것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부정(不正)한 존재인 장애인을 정립하게 만들고 정화(淨化)시켜 내는 것이 재활의 목표였다. 서구 역사에서 재활 의학이 가장 발전했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부상자가 많아지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고 성장한 것이 재활의학이었다. 무미건조하게 말하자면, 재활은 손상된 노동력을 재활전문가라는 수리공에게 맡겨 수선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¹⁵⁾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적 목표가 앞서 말한 ‘정상화’나 ‘재활’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OECD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실패로 노동과 성인 생활로의 성공적 전환을 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집단’으로 위기 청소년을 정의한다. 이들의 삶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기여하지 못하거나, 예비 범죄자로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게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적 목표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은 다시 기존의 규범과 제도로 청소년들을 재진입 시키기 위한 적절한 후회로의 역할로 배치된다. 돌아서 오긴 했지만(방황했지만) 어쨌든 ‘바른 길(正道)’로 찾아왔다며(성공적 전환) 안도하기 이전에 국가가 요구하는 정상화의 기준을 중심으로 ‘탈위기’를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김인숙(2007)의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관련한 연구는 국가/정부의 관심사대로 자활¹⁶⁾을 평가하는 것의 한계를 잘 짚어내고 있다. 김인숙은 수치화, 계량화된 자활 평가 척도를 비판하며 자활에 대한 혼란과 오해의 중심에는 ‘자활 성공률’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거두절미하고,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유지할

15) 김도현,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을 넘어 다시 연립으로」, 몽실 초청 간담회 발제문, 2015, 3쪽.

16) 최일심(2013)에 따르면, 자활은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활과 자립은 개념적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립의 경우에도 직접적소득 보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수 있는 ‘탈수급’, ‘탈빈곤’ 상태를 자활의 성공으로 본다.¹⁷⁾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고, 정부의 관심은 경제적 자립으로 한정되는 자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성매매 여성 지원 현장에서 자활의 지표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획득이나 기술의 습득 자체가 곧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시설에서 만료된 제도적 기간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자활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닌다.¹⁹⁾ 연구 참여자인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 역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탈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활을 해야 되고 항상 조건이 따르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자활인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자격증 하나 없어서 자활이 안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²⁰⁾ ‘과도한’ 기대는 또한 자활의 짐을 자활의 당사자에게 지운다. 자신에게 이름 붙여진 ‘자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못한 모자란 존재로 스스로를 낙인 짓는 ‘짐’이 되기 때문이다.²¹⁾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의학적으로는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동구는 “너는 뭐가 되고 싶어?”라는 친구의 질문에 참았던 울분을 내뿜으며 “난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라고 응수한다. 남성/여성의 경직된 이분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회가 인정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은 고군분투하지만, 그래봤자 자신은 늘 불완전한/비정상적인/기이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동구는 알고 있다. 동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반평생을 고립된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시작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의 제목은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이다.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국가/사회를 향한 그이들의 항변이 들려온다. 이 한 조각의 영화 대사와 한 편의 책 제목이 우리가 위기 청소년의 자립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김인숙,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진단척도 개발의 필요성 및 내용」,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자료집, 2007, 21쪽.

18) 김인숙, 위의 글, 30쪽.

19) 김인숙, 위의 글, 25쪽.

20) 김인숙, 위의 글, 36쪽.

21) 김인숙, 위의 글, 29쪽.

조건 없는 자립: '정상화 규정으로 몰아내지 않기' & '순응'이 아닌 '적응력'만들기

서원: 무단외박을 해서 퇴소 당했는데 (...) 당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곳이랑 먹을 거였는데도, 쉼터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친구들한테 의지를 했으니까. 핸드폰도 뺏고 연락도 안 되고 외출도 못하고. 너무 짜증나고. 밥 못 먹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노상 까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해도 그게 재미있었으니까. (쉼터에는 그럼 왜 다시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배고프고...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내 의지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서원: (앨리스(이상한 나라)를 저한테 소개한다면 뭐라고?) 자립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곳. 규정에 얽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끼리 만들어가는 곳. (내 집 같아요?) 네. 쉼터에서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차피 난 여기서 나갈 거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안 도와주고. 대충대충 지내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개미: 신기한 게 여기는 외박이 완전 자유인데 서원이는 한번도 외박을 안했어.) 여기 있으면 애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 여기 있으면 재미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힘들지, 돈 쓰지, 싸움나지. (개미: 자주 외박하는 앨리스는 아직 그 재미를 모르나봐.) 내가 부족한 걸 계속 채워온 거 같아요.

서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자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준에서 자립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도움이 필요한 뭐든. 자기 꿈도 있고 의미도 있고. 배우려는 것도 있고. 쉼터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지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자유를 갈구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는 외박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쉼터에 있는 애들 보면 공격적이고 예민하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기 힘 과사하는 애들, 경계하는 애들... 어떻게 보면 폭력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쉼터의 분위기, 애들 관리... 사람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많은 노력과 끈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자립팸 '이상한 나라'에서 서원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 개미는 <거리현장에서 본 청소년 자립의 사회적 과제>를 발제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자립의 상태나, 자립을 위한 개인적인 조건은 사회에 잘 적응하거나 사회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상태만을 자립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흔히 자립의 영역으로 꼽는 사회성 발달,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기술²²⁾이 쉼터나 청소년 이용기관에서는 다양하게 규칙화 된다. 예의범절 지키기, 귀가시간 지키기, 욕하지 않기, 금연,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규칙은 이미

22) 청소년 상담원은 9가지 자립 지원 영역을 제시한다. 주거, 일상생활 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취업), 경제기술, 자원활용, 원가족과의 연계가 그것이다.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칙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규칙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무작정 밀어내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몽실 초등학교 간담회에 참석한 나랑은 그녀가 활동할 당시 엄격했던 열립터의 생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규칙을 거둬서 어기면 강제 퇴소를 해야 했다. (열립터에) 오래 살면서 치유를 하고 여기서 자원을 얻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원이 없고 케어가 더 필요한 사람을 쫓아내는 형국이었다.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쉼터 규칙 및 퇴소 조항의 딜레마에 대해 강조했다.

서원은 잘 곳과 먹을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을 포기하는 걸 감내하고서도 억압적인 쉼터 규정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사는 삶을 택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다시 쉼터로 복귀하곤 했다. 그런데 쉼터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한 나라’에서는 반대로 밤낮을 바꾸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이 이런 생각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그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기 때문일까? 서원은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알고 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많은 노력과 끈기, 믿음이 필요하다. 서원의 이 말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실무자/활동가들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향해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 노력과 끈기의 시간은 쉼터의 분위기, 실무자와의 관계, ‘공격적이고 예민한’ 마음 상태를 스스로 다뤄보려는 시도 등으로 한 데 얽혀있다.

쉼터가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공간이라면, 쉼터의 규정을 단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빼앗는 퇴소 조치를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정하면서 쉼터 규정을 바꾸어나갈 필요도 있다. 그 규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위에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 규율과 같은 문제가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일이라는 자기 동기가 분명해져야 한다. 나랑 역시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만든다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를 결함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대나 방치 속에 살아오면서 그것을 방어하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한다는 차원”일 때 쉼터 내 약속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약속’을 일궈가는 과정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설득이 아니라 지난하고 무수한 ‘말싸움’과 서로 동의를 구하고 협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력’을 발휘하는 과정이고, 어디서부터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이클(하루 일과 혹은 인생 전반)에 맞춰 ‘순응’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가늠하기란 참 어렵다. 더군다나 취업률/자격증 취득률/검정고시 합격률 등이 성공적인 자립을 뜻하는 기관의 지표로 자리 잡거나, 재정과 예산의 힘을 쥐고 있는 정부나 법인이 성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때 언제든지 자립의 주체(당사자)와 객체(관리자)가 전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김인숙(2007) 역시 기존의 자활 개념과 정책이 당사자보다는 관리자들에게 더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 패러다임은 자활의 당사자를 관리자의 시선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²³⁾

더 복잡한 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실무자/활동가들의 마음이다. 사회의 고정된 규범과 제도 안으로 청소년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검정고시라도 합격하는 것이...’, ‘학교에라도 나가는 것이...’, ‘밖에서 걸도는 것보다는 여기서 혼나는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낳는다.

송푸름(성북청소년자활지원관): 기관에서 핫이슈는 기초학습을 해야 되냐 아니면 놀게 내버려둬야 되냐.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하거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 아무도 없지만,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굶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어도 가르쳐야 된다, 기초학습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 놀려면 놀아, 이걸 너무 무책임한 어른인 거 같고, 거기에 강압적이긴 해요. 저는. 무조건 수학 5장 풀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못해서 수업시간에 자고 무시당하고. (...) 그걸 해냄으로써 하루 5장씩, 본인 스스로도 풀리는구나. 이런 성취감?

이현진(함께걷는아이들): 학교에서 성적이 좀 향상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 예방차원에서선 기초학습에 대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정현(일하는 학교): 전 대안학교 쪽이니깐 일반학교 안 가고 여기로 오라고 해야 하나 싶은데, 대안학교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 오는 것보단 그래도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오면 우울해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깐. 늦게라도 와서 짝고라도 가는 게 몸과 마음 건강상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 아까 대학거부 청소년 그룹 얘기하셨는데, 밀려나듯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하고는 많이 결이 다르고. 자발적이든 자기 선택으로 한 사람들이라서. 학교를 떠난 이들이 회상할 때는 대부분 ‘그때 그냥 그렇게 있을 걸’해요. 학교를 떠난 순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차이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고.

김선옥(커피동물원): 커피동물원 같은 경우는 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요. (...) 그냥 제 바람은 (...) 검정고시라도 마쳤으면 하는 거고. 학교를 그만두면, 그만두는 대안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한 거죠. 대안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검정고시도 지금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냐.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자주 있어요. 이것도 강요인가요?

- 2015년 3월 13일 몽실 청소년 인권 교육 속기록

23) 김인숙, 위의 글, 25 ~ 26쪽.

학업(기초학습 능력, 중고등교육기관 진입)에 대한 성취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업이 중단되었을 때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버거운 차별 등 실무자/활동가들의 현실 진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다. 인터뷰에서 미진은 “공부를 잘하면 진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학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먹고 살 길이 열리는 지금 사회에서, 학력을 포기한 채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진단과 실천적 선택이 동어반복의 회로에 갇히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인식에 대한 실천이 ‘그래서/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차별의 회로를 더 두텁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집단적 실천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나의 길 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면, 그 이외의 길이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한 실천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말끔하고, 오류 없는 실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기초학습 교육이나 검정고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의 질문이 될 수는 없다. 대안적인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백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며, 슬프기도 기쁘기도 한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버둥거릴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실천이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관/모임/조직들의 연결망이 튼실해지는 것도 절실하다. 지난 8월 자몽 숙박 워크숍에서 늘푸른 자립학교의 이은정은 거대한 사회 시스템과 마주할 때의 막막함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해주려고 욕심내진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막막함이 있다. 무엇을 해야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해질까 고민 하는데, 요즘은 그냥 내 한 평의 땅에서 건강하게 먹고 사는 고민을 하게 된다. 몸의 노동과 머리를 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거대한 구조 안에서 내 이 한 평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스무 살이면 성인의 외투를 입게 되는데 그런 외투를 걸칠 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지금 처해있는 내 위치에서 어떻게 고민할지 (동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환경을 둘러보고, 네트워크를 찾아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잘 되지는 않는다.”

배제되지 않고 사회(사람들)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러한 마음이 학업을 비롯한 정상성의 표지들을 획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성취가 정직하게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청소년들도 이미 알고 있다. “공부해서 뭐해요. 어차피 다 비정규직인데...”라고 세상을 간파한 이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보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방향을 잃은 노력의 결과로 마주하게 되는 빈번한 실패는 이들에게 냉소나 자학을 안겨준다. 여기서 이은정이 말한 ‘한 평의 땅’에 주목하고 싶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다른 삶의 전략을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 그럴 듯하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 몸과 머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삶.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 삶은 성공/실패의 이분법 혹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빗겨 설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의 글에서 연구자 하승우는 이렇게 말한다. 막막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더 간악한 지배, 더 폭력적인 내몰림, 깨지고 부서진 관계들이 우리 시대를 장식한다. 사적인 공포가 공적인 장을 압도한다. 체제의 강력한 알리바이는 일상으로 스며들어 개인을 지배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뒤로 넘어져 본 사람들은 그 고통에 공포를 느낀다. 홀로 넘어졌을 때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둘이 있다면? 두 사람이 넘어질 때 꼭 잡아주겠다고 서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간다면, 공포는 남아도 불안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는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믿게 되고 결국에는 뒤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연대의 삶이 그렇게 시작된다.”²⁴⁾

윤미라(제프):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자유가 포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정고시만은 강요하고 그거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른들도 일만 하면 힘들거든요. 자기가 미치게 좋아하는 것들에,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작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하면, 다른 것도 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학교 안 다닌다고 그 권리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 그런 거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한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은 그거 아니어도 가정이나 다른 걸로 슬픈 애들인데, 점차 희망이 보이고 좋은 게 있다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거든요.**

서원: (자립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밤낮 바꾸는 거랑.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이라... 남들이랑 똑같이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는 시간이랑 신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쌓기 위해 만드는 거. **혼자 지내게 된다면 정보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주부 같은 개념? 어디 가야 제일 싸든지. (...) 쓸데없는 소비 줄이는 거. 그런 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립 준비라고 하면 **돈이랑 사회생활!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해요. (...)** 내가 즐기면서 뭔가를 해야지, **억압을 받으면서 하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즐겁진 않아요.** 나는 노는 걸 좋아해서...

결과 이전에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서원의 말은 무엇이 자립인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시선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게 한다. ‘체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24) 하승우, 「리뷰: 혁명의 기도가 대학을 휩쓸 때- <어셉티드>, 《혁명을 기도하라》, 『오늘의 교육』11호, 2012, 245쪽.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미라의 이야기도 울림을 낳는다. EXIT의 활동가가 자립은 학력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과 같은 완성된 형태의 명사가 아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동사라고 말했던 기억도 난다. ‘조건 없는 자립’의 여건은 이렇게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계단이 아니다: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나

고정되고, 단일한, 정상화된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 자립 지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립을 ‘준비-완료’로 도식적,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기존의 자립 개념 역시 비판해보아야 한다. 이는 사람의 시간과 성장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최일심(2013)은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²⁵⁾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하고, 청소년은 아직 독자적 인격체가 아니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관점은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 하에 대부분 청소년 자립 지원은 가정 또는 사회 보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 보호가 가능한 청소년들은 자립 지원 청소년 기관에서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되고, 가정 보호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은 시설 보호의 체계 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시설 퇴소 후에는 완전한 자립에 이르게 된다.²⁶⁾ 배주미 외(2010) 연구 등은 가출 청소년의 자립 모형으로 쉼터 입소 단계- 자립 준비 단계- 생활 전환 단계- 독립생활 단계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 ‘준비’ 단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자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더 정확히 말해 유독 청소년과 관련해서 자립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까. 이런 식의 구분은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성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청소년 자립 연구자들은 대개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진정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이들의 나이가 아니라, 단계적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 세계의 제약²⁷⁾이 오히려 당면 과제인 자립을 유예시키거나 방해한다는 점 아닐까? 더불어 기존의 자립 개념이 ‘(사회부조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정의될 때, 일정 나이가 지난 성인의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없이 자립을 강요받기도 한다. 청소년기라는 생애주기 상의 구분은 역사적 구성물이며, 청소년(미성숙) vs. 비청소년(성숙)의 이분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온 청소년 인권(운동)의 목소리가 청소년 자립 담론과 만나야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립 연구들, 특히 현장 경험을 반영한 질적 연구들은 자립의 경험 또는 과정이

25) 김인숙, 위의 글, 35쪽.

26) 김인숙, 위의 글, 35쪽.

27) 경제권(은행 이용, 주거 계약 등의 제약)과 노동권(구직 및 소득 창출의 어려움)의 봉쇄 등이 대표적.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 과정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드러내고 있다. (김은녕, 2015. 최일심, 2013. 김인숙, 2007) 김인숙(2007)은 “경우에 따라 선형적 과정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순환적, 반복적 과정을 거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보’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퇴보 혹은 퇴행의 과정을 순환, 반복하거나 특정 과정을 건너뛰는 ‘점프’의 과정을 거친다. 자활 과정의 이러한 복잡성은 자활 당사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상호적임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²⁸⁾고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지금 현재의 자립: ‘진짜 자립’의 중요성 & 시차와 맥락을 인정하기

곰곰: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면접에서 막혔어. 지역이 다르니까 안 쓰려고 하더라고. 미성년자고. ‘가출을 한 것이 아닐까’가 컸어. 그래서 일을 잘 못 구했어. 기관에서 연결하는 종류를 많이 했고.

곰곰: 자활지원센터에 갔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 참혹했어. (...) 맨날 후원금 내라고 하고. 식비를 내라고 하고. 돈을 다 떼어가더라고. 근무 외 시간도 안쳐주고. 그러면서 뭐 시키면 ‘돈을 줘요?’라고 묻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돈부터 이야기 하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더라고. (...) 그러다 내가 우연히 대표랑 매니저가 하는 말을 들었어. 대표가 매니저한테 근무시간이 이게 뭐냐고. 내가 그 때 한 달에 최고로 받은 것이 98만원이었어.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 일하고 토요일은 격주고. 시급 6030원이었어. 시급은 높은 편이었지만, 토요일은 완전 12시간 일했어. 거의 다 마감도 내가 하고. 미치겠더라고. 그렇게 까지 해서 받은 것이 98만원이었어. 그걸 보고 대표가 하는 말이 급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100만원 안 넘게 나오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한 거야.** 그걸 듣고 빈정이 상했어. 이게 뭐하는 거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화가 나더라. (...) 거기서 내가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어. 애인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 밥도 먹고 그랬었어. (회식비를 걷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나더러 **‘애인하고 놀 돈은 있고, 회식할 돈은 없냐’**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꺾꺾 참고 있었는데, 일단 일을 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니깐 쌓인 게 터져서 그 다음날 (일하러) 안 나갔어.

곰곰은 집을 나온 후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낮 시간에 일이 가능하고 거주지(본가)가 일터의 위치와 달랐기 때문에 그녀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혐의를 샀다. 그녀가 집을 나온 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고용주들에게는 불안정/불성실의 표식이자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하기에 누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가 필요했지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나이를 속이지 않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집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소년의 주체성을 모두 봉쇄한 제도들 때문에 그녀는 조건 만남을

28) 김인숙, 위의 글, 28쪽.

하거나 일용직 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자립을 원하거나, 자립의 문턱에 돌입한 상태여도 청소년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이는 김인숙(2007)의 연구에 참여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녀들은 '자활을 위한 준비'와 '진짜 자활'간의 간극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²⁹⁾ 그녀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갖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정된 일자리 준비'보다 일자리 그 자체이다.³⁰⁾ “생계 자체가 안 되는 사람한테 가치를 찾으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힘들었어. 돈을 벌지 못하니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³¹⁾ 성매매 여성들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얻는 것은 별개라는 것, 따라서 자활의 '준비'가 안됐다고 '자활'이 안됐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토로한다.³²⁾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기관 연계를 통해 소개받는 일터의 경우, 청소년과 실무자/활동가 사이에 극명한 입장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커피동물원이 청소년들이 고용된 일터이자 수익을 내야 하는 상업적 공간이자 자립을 훈련하는 교육장이라는 복합적 정체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맥락과 통해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실무자와 청소년의 관계 맺기에서부터 급여를 둘러싼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이야기를 이 지면에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훈련을 위해 어쩔 수없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귀결은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곰곰의 사례에서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일을 하라거나, 대표가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를 노동자에게 설파하는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여기에 곰곰이 위기 청소년(연령과 낙인의 문제)이라는 조건은 고용주의 훈계에 한층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훈련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존중 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자립 훈련의 의미 아닐까. 공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급여 보장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월급을 줄이거나, 월차를 없애는 식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운영의 공동 주체로 이들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9) 김인숙, 위의 글, 33쪽.

30) 김인숙, 위의 글, 36쪽.

31) 김인숙, 위의 글, 35쪽.

32) 김인숙, 위의 글, 36쪽.

서원: (쉼터에서 도움이 됐던 게 있었어요?) 뭔가 취업이나 인턴십 연계해준 거? 자리 잡는 기회를 연결해준 거? 취업성공패키지? **근데 (상담, 학원, 취업의 3단계 중에서) 상담만 받고 끝났어요. 그때 (헤어졌던) 애인이랑 다시 만나게 됐는데 쉼터 나와서 방 잡고 개를 먹여 살리느라고.**

서원: (서원님이 '자리를 잡고 싶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자리를 잡는 게 어떤 거예요?**) 그때 당시엔 학교를 포기했으니까 사회 시선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집을 나왔고 학교도 나왔지만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하고. **뭔가를 배우고, 하고 싶은 걸 시도해 보기도 해야 하고.** 근데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나중에 배우면 되지, 검정고시 나중에 따면 되지 그렇게 자꾸 미뤘던 거 같아요.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도 무서운 거죠. 내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공부도 안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서원: (자리를 잡는다는 게 배워야 한다가 아니라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 해보는 거?) **그때는 하고 싶은 것(운동)도 중요한데 그때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학교 그만두고 쉼터에서 생계유지하기도 힘들었으니까. 계속 돈한테 쫓겼던 것 같아요. 돈이 된다고 해서 한 일도 있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배운다기보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네요?) 애들하고 있고 싶은데 방을 못 구하니까. 돈을 벌어 방을 잡으면 애들이랑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서원: (보통 집에서 독립한다고 하면 나 혼자 돈을 모으든 집에서 지원을 받든 해서 방을 얻고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경향이 많은데, 반대로 서원님은 빨리 돈을 모아서 방을 구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 생각을 많이 했었군요?) **그때는 혼자 있는 게 너무 그 시간이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 노력하고 참아서 된 거예요.**

사람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자립의 과제는 다를 수 있다. 서원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나, 당장 애인과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버는 쪽을 택했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택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 그때는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것'보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서원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주변인들의 시도가 있을 때, 청소년 본인도 그 시간을 '자립을 멈추고, 잘못된 선택을 한 순간'이 아닌 '자립의 시간'의 일부분으로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교육공동체 '나다'활동가 변은 10년 전 네 명의 탈가정 청소년들과 살았을 때의 일화를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좋은 아빠나 교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에게 아빠나 교사는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선이었기에 그들은 눈치를 보며 자신을 숨기려고 했고 나도 '똥폼'을 잡느라 솔직할 수가 없었다.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 했을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보기는

처음이라고 고백했다.”³³⁾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옥죄고,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선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자립임을 생각해보게 된다.

더불어 만약 서원에게 애인이나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가 제공되었다면, 서원은 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에 도전할 기회를 찾았을 것이다. 꿈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설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주거 지원, 앞으로의 정착을 예비하는 저축 형식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등이 ‘지금 현재의 자립’을 든든하게 받혀줄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자립: 기동 없는 집 vs. ‘모퉁이’에서 쉬어가는 시간

시간이 단계적·본질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또 하나의 자립 개념이 ‘지속 가능한 자립’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본래 생태학적 용어로서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 개인의 삶과 사회를 생태계로 보자면 지속가능성이란 사회 생태계의 일부로서 개인의 삶을 바라보며,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사이의 ‘연결’과 ‘과정’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자립이란 당사자가 무언가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도들과 삶의 과정 자체를 자립으로 인정하는 것을, 자립 지원 기관에게는 당사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무수한 단기적 지원의 ‘연속’ 혹은 ‘연결’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을, 사회에게는 지속가능한 자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생태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나 동기 없이 강요되는 자립(퇴소, 학력 취득 등), 특정 국면이나 시점에서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자립, 자립의 총체성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 차원의 취업(탈 복지 의존)만을 강조하는 자립, 자립의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지 않고 개인의 의지와 자격 갖춤만을 강조하는 자립이 오히려 자립 당사자들의 삶의 생태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33) 변, 「가족, 시선의 감옥」, 『교육공동체 나다 인문학 잡지 나다Wom』7호, 2015, 44쪽.

미진: (할머니가) 너는 대학에 갈 생각하지 말고 취업이나 해서 집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졸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슬슬 저는 처음부터 대학을 안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벌어야 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정작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생각만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을 다 보낸 거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도 솔직히 제과제빵, 사진, 요리, 연극 이런 거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뭔가 **어중간하게**. 남들보다 **특출나야** 그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 고3도 그렇게 무난하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했는데 너 뭐 할 거니?'라는 질문을 엄청 받았죠. (...)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상담사라는 직업도 막 찾아봤는데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많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해도 뭘까**. 제가 게으른 거죠. 아유 안 되겠다. (...) (이모가) 본인이 완전 푸시를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성격이시라 이사 간 첫날에 저를 데리고 간호학원을 등록했어요. 제가 바늘도 무서워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기 싫다고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조무사 준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미진: 저는 살면서 제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간호조무사 학원 등록 전)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게 돼서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나이 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은. **앞으로는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고**, 저 그런 애들 진짜 부러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학원비 대주는 애들. 저는 지금 당장에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엄마, 아빠가 돈 내주는 학원 다니면서 다니기 싫다 찡찡대고 진짜 꼴불견이었어요. 저는 학원비는 할아버지가 저 집 나간다고 이것 저것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남아서 그걸로 결재는 했어요. 아직 옷 같은 거는 사야 되고. 제가 돈 벌어서 전기세나 이런 거는 알아서 내야 돼요.

서원: 내가 자립해야 한다, 뭔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20살까지 그래야 한다는 게 그때는 엄청 부담이 됐어요**. 나이는 드는데, 제 나이 주변에서는 사회생활 하는 애들도 있고 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참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참고 무너지고 반복돼요**. 그런데 **여기(이상한 나라)와서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하게 생각 말고 나이에 대한 압박감에서도 좀 벗어나서...** (...) 엄청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빛이 있으니까 더**. 나는 이 빛을 다 갚기 전에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빨리 빛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 하나로 일만 했는데. 이자만 빠져나가고 돈이 모이지도 않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짜증나고, 생활은 생활대로 짜증나고. 외롭기도 하고. 반복되지만 나는 이거 빨리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기둥 없는 집을 만드는 느낌? 집을 지으려면 땅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기둥은 어떤 걸 좋은 걸 써야 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그냥 막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원: 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낭떠러지 앞에(옆에) 빠져나온 모퉁이 같은 데서 쉬었다 가라고.** (...)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기회가 올 거고, 모퉁이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만,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가다가 돌덩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에 맞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걷겠다는 생각보다는 **앉아서 좀 쉬었다가 포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걷는 데도 체력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깝잖아요? 힘들게 왔는데, 돌아가면 이 길을 다시 가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쉬었다 가는 게 낫잖아요. 쉬는 **동안에 생각이 계속 바뀌니까.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힘이 다르잖아요.** 늦더라도 회복하고 가는 게. (...) 결과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아요.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모퉁이에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내가 갈 때 뭔가가 날아오면 어떻게 피해야겠구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같은 것도 생각하고. (...)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른들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없다** 그러고. (...)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 자체도 별로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방학 때는 대학생들이 다 채가고.

미진은 여전히 진로를 고민 중이다. 가족 안팎의 지원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차차 준비해나가고, 대학생할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 진로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의 지원이 없거나, 탈가정 상태인 청소년들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압박에 내몰리곤 한다. 미진은 18살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간 다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곧장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지는 못했다.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상담사)을 발견해도 문턱이 높아 시도해볼 생각을 접게 된다. 결국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서원은 스무 살이 되면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에 쫓겼던 시간을 기둥 없는 집을 짓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비록 신경은 쓰이지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서원은 모퉁이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생각을 익혀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기 동안 정해진 결과를 성취하라고 사람들을 내모는 자립, 그리하여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는 자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쉬어가도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촉한다. 좀 쉬어가려 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서원은 사기를 당해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일해서 번 돈을 가족에게 보태느라 까먹었고, 앞으로 자립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돈도 모아야 하는 형편이다. 미진은 지금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은 여행을 꿈꿨지만 떠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준 독립 자금으로 당장의 학원비는 결제했지만, 앞으로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다양하거나, 구직이 쉬운 것도 아니다. 자립을 하라고 재촉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일자리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모순. 지속가능하지 않는 세상에서 지속가능한 자립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는 꼴이다.

곰곰: (내가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들은 나이였어. 20대가 되길 항상 꿈꿔왔어. 하지만 나이가 제일 도움이 되기도 했지.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 (자립 지원에 있어서) 사실 난 19살~20살도 문제지만, **20살~22살도 문제라고 봐. 이때는 나이도 애매하고, 원가 딱 걸려있지 않으면 지원받기도 어려워.**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계를 잘 모르겠어. 블로그에 글로 쓰기도 했지만, 20살이 넘었다고 성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어린 애야.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대출 받고 빚에 허덕이기도 하는 거야. (...) (연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뭐하나 고르자면, **의료지원**은 좋을 것 같아. 나도 밖에 있을 때 아프지만, 집에 있을 때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는 것이 제일 사치라고 생각했어. **집에서 끔찍 않다 한숨 자면 낮고.** 이런 것이 커서 의료지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속가능한 자립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지지 않기 위해 곰곰은 스무 살이 지난 사람들의 삶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 이야기를 담은 『그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냐』를 보면, 마냥 웃고 넘길 수는 없는 기록이 등장한다. “우리가 지금은 어리니까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러주지, 나이 들면 그냥 ‘노숙자’ 되는 거야.” 지금의 사회복지 시스템 혹은 자립 지원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통찰이 아닐까 싶었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쉼터인 열림터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에서도 자립에 필요한 시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퇴소하는 시점과 자립하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음을 짚는다. 따라서 퇴소한 뒤에도 자립을 훈련하며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여러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생태계 안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때 당사자들은 긴 호흡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³⁴⁾

지속가능한 자립은 자립의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자 동시에 장소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특정 연령대로만 한정하지 않는 자립 지원 제도나 정책은 자립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나 정책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주거가 있고, 소득이 보장된다고 해도 삶을 함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추억을 쌓거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비밀 언덕’이나 ‘아지트’가 없다면, 어렵사리 확보한 시간은 무료한 생활로 채워질 것이다. 위기 청소년에게 삶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는 더욱 중요하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이나 학교가 그러한 장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렇다고 가족과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소는

3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2014, 이매진, 182쪽.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사회 곳곳에 차별 없는 환대가 가능한 장소들을 넓혀 가고, 그러한 가치들이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연결 지을 때 비로소 삶도, 자립도 평생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동체 제프가 다양한 ‘밀작업’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마을에 섞여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일하는 학교가 마을 공헌 활동과 자립을 연결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에 그 가능성의 씨앗이 담겨 있다.

홀로 서기의 불가능성: 자립 vs. 의존 이분법 비판

독거 생활을 하는 남성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누구도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밥을 한 끼 해결하는 데도, 출근을 하는 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에 빚지고 살아간다. 인간의 삶에서 ‘의존’을 제거한다는 건 요즘처럼 자급자족 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생활의 불가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아니,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인간(人間)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존재임을 뜻한다. 나를 나 자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타인/들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삶이 가능하다. 의존이 사라진 자립(독립)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빈곤층 독거노인 분들이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주변에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관계, 제도 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³⁵⁾

의존이 모든 인간의 당연한 속성임에도 현실에서 ‘의존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노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뿌리를 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노동력을 팔 수 있어야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팔릴 수 없는 노동력, 비정상적인 몸과 정신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이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라 여겨지는 이유다. 거꾸로 노동력을 계속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사회는 지탱된다. 그러므로 ‘몸과 정신이 온전함에도’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는 식의 낙인을 찍고, ‘세금을 축내는 무임승차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어떻게든 ‘자활’ 시키려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영혼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일터의 구조와 환경, 노동할 기회로부터의 배제, 일터에서의 차별 문제 등 곤경을 초래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사라진 채 자립(자활)하지 못한 개인의 태도(의지)나 능력만을 문제 삼는 꼴이 된다.

청소년의 자립 경험은 대개 ‘함께 살다가(시설, 쉼터 등에서) 홀로 서는 과정’으로 묘사되곤 한다. 자립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존하지 않고 홀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떠나 개인화되는 것을 자립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자립을 어려운 과정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김인숙(2007)은 개인의 태도와 성격을 변화시키므로써 취업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과 기술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화된 자활’이 갖는 문제점으로 자활 당사자에

35) 김도현, 위의 글, 7쪽.

대한 낙인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 자활의 책임을 사회적 능력이 아닌 자활 당사자 개인의 능력에 두어 자활 해결책을 개인화하거나 심리학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 대한 비난을 촉발한다는 점, 자활을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적 상태’로 자기 이미지화하게 함으로써 ‘연결’과 ‘상호의존’을 배제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도현(2015)은 자립과 의존이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가치로 우리 삶속에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립/의존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되었을 때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가 바로 ‘함께 어울려 섬’, 즉 연립(聯立)이라고 말한다. 홀로서기도 낙인화 된 의존도 아닌 ‘함께 서기’로서의 자립을 우리는 ‘관계적 자립’으로 개념화했다. 더불어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의 동등한 주인공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체적 자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관계적 자립: ‘나홀로 자립’이 아니라 ‘함께 자립’의 중요성

곰곰: (파트너가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등 관계가 가혹했는데, 왜 그 관계를 유지했을까?) 가정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 거의 방목 수준이었어. 혼자 집에 있고, **사람이 너무 고팠어**. 학교 폭력이 있어서 학교생활도 안 좋았고, 집에 오면 내내 혼자였고, 너무 외로웠어. 성정체성을 깨닫고 (...) 네이버 카페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났어. 그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 (...) (내가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날 데려간 것, 그리고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만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던 것도 같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

곰곰: 내가 (자립팍) 운영위 보고서에 **사람이 굉장한 자원**이라고 썼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위협에 처했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같이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게 좋으니까. 앨리스도 지금이야 (물질적) 지원이 있지 전에는 가난했어.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앨리스는 사람이라는 자원이 좋다는 것이 내 의견이었어.

서원: (앨리스(이상한 나라)를 떠날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살면서 제일 싫은 게 제가 무너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무너지게 하는 거. 제가 밑바닥까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섭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거니까. 그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나고, 제 마인드가 무너지고 그럴까봐.

서원: 시간을 줬는데 아직 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끌고 끌고 끌고 이러는 거. 계속 압박감은 드는데 나는 아직 나가고 싶지 않고 나가는 게 무서운데...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외롭고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고**. 지금도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면 또 혼자 지내야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자립을 위한 곳, 자립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자립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그게 걱정이예요. 혼자 지내면 우울할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곰곰은 그녀의 파트너가 가혹하다고, “이용하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음에도 1년여 동안 연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가장 외로웠던 시절 어쨌든 자신과 관계 맺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무 연고도 없는 관계의 황무지에 홀로 있었다는 것이 그녀가 폭력으로 얽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이유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관계의 결핍은 유일한 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서원 역시 외로워서 집을 나왔고, 집 밖에서도 그녀는 외로움을 겪었다. 앞으로 ‘자립’을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문제 외에도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어 독립하는 경우는 기존의 가족/사회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혼자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에 가깝다면,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은 원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탈가정 이후 만들어졌던 일시적 관계들도 끊어진 채, 혼자만의 ‘외로운 섬’으로 밀려나는 일이 되기 쉽다.

쉼터 청소년 자립에 대한 질적 연구물들을 보면, 등장한 사례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살 사람, 대화할 사람, 정서적 관계를 맺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자립에 있어서도 고립되는 것이나 물어보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 힘든 것으로 꼽는다. 곰곰이 “사람이 굉장한 자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립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 더군다나 가변성과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와 제도를 고려할 때, 관계 맺기를 통한 유대와 결속은 더욱 중요해진다. 사람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의 실천을 굵은 뿌리에 빚댄다면, 위태로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부축하는 수많은 잔뿌리가 바로 관계 차원의 실천에 해당할 것이다. 아동생활시설인 대자원이 퇴소 선배들과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만남을 열고, 자립을 앞둔 막막한 심정을 보듬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이러한 실천의 하나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든실한 ‘관계망’을 조직해야 한다.

서원: 그때는 되게 세상에 대한 미움이 많았어요. 반항하는 행동도 많이 하고. 누가 걱정하고 조언을 해도 안 들렸어요. 어차피 지가 내 상황이 되어본 것도 아닌데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많이 막았었고. 18, 19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는 사람도 막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보단 친구한테, 친구보단 애인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가버릴 사람들인데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나, 어차피 갈 텐데 실망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기 방어'? (...) **평생을 자기 방어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 동정하거나 그런 건 정말 싫었어요.** 내가 쉼터에 있으니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샘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서원: (지금 앨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고. **쉼터에서 생활할 때도 어차피 애네들은 갈 사람들이고 연락 안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남을 애들은 남겠지만... 지금까지 애들이랑 지내고 놓고 그래도 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나눴지만...

서원: (앨리스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뭘 도와주나요?) 실질적으로 바로 도와주는 건 없지만... **정보 같은 걸 알려주고 기회들을 많이 알려주고(...) 혼자자 아니고 같이 고민해주고 생활해준다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 원래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았어?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그럼 한번 해볼까? 내가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이렇게. (EXIT) 버스에서 뭘 하거나 하면 저희도 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게 많아지니까.

서원: (왜 앨리스 활동가들이 선생님이란 호칭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거리가 있으니까. **보통 애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정을 다 나눌 수 없으니까. 저희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저희랑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탈가정, 탈학교의 경험은 '주어진 가족 관계', '주어진 학교사회 내 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를 전면적으로 실험하는 계기가 된다. 반면, 쉼터나 기관의 실무자들이 청소년들과 맺는 관계는 '떠나온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동정의 대상'이라는 기분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탈가정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친구나 애인에게 많이 의존하지만, 그 관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서원은 자기를 바꾸려는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로서 다가온 활동가의 오랜 설득과 기다림 끝에 이상한 나라(앨리스)에 입국했고,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덜 외롭게 보내고 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웅크려있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과 경험에 대한 기대가 차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립 지원에서 사회적인 관계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하자는 제안으로 축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망을 만들 기회 제공, 주변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본다는 차원으로 실천의 폭이 확장되어야 한다.

미진: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얘기를 할 때 굳이 해결이 안 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문제가 생겼어도 그 사람이 해결 방안을 내줄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 (어려운 상황을 얘길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서원: (서원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글거리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제가 해준 얘기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이런 마음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편견 없는 눈으로 보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곰곰: (괜찮은 10대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나쁜 것도 해봐야 나쁜 것을 알고, 그래야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런 경험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어려워.** 사람과 사람이 공감대가 있어야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지. 백지 상태면 사실 어려워. 나는 뭐든지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위험하지만. 위험하고, 힘들고,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미진이 곁에 사람이 있길 기대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주고받고 싶어서’이다.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누가 대신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다만 미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청자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청자가 되고 싶어 한다. 우리의 말은, 표현은 청자를 만날 때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동등한 관계의 징표이자, 기억과 지혜를 공유하는 사이를 뜻한다. 경청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미진에게는 삶의 등지를 짓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서원 역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서로 응원하고, 보듬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쌓여가면서 무너질 것 같은, 흔들릴 것 같은 서원의 마음을 잡아줄 것이다.

곰곰은 본인의 ‘위기’ 경험이 타인과 관계 맺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실 안의 화초’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제도와 규범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온 사람들의 협소한 시각이 어떻게 그녀와 그녀 주변인들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일그러트려 왔는지 짐작해본다. 누구의 삶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곰곰이 거리에서 체득한 관계 맺기의 원칙이 아니었을까.

주체적 자립: 자기 주도권을 갖고 관계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힘 & ‘색깔 있는’ 삶

곰곰: 나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것은 좋는데 부담스러워. 나는 나를 하찮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나를 대통령 마냥 보면서 나에게 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 나도 그이들을 많이 의지하고, 그이들도 무척이나 많이 의지해. 지금은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과 활동가가 이런 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미진: 나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지키면서 나오지. 그런 것도 쯤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과 □□이(실무자) 저를 아끼시잖아요. 기대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만큼, **잘 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더 욕되는 거 같아요.** (...) △△(실무자)도 저를 많이 챙기셨잖아요. 저를 챙겨 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좋죠. 근데 지내다보니깐 힘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싫다 내색을 못하겠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바로 같아서 그런지 상대방 기분을 내가 기분이 좋은 나쁜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기보다 저도 모르게 **몸에 배여 있어요.** (...)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저는 그게 불편해요.

미진: 제가(스무 살 되고) 용인에 간 거는 △△과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있거든요.** 웬지 그 근처로 가면 자주 오라고 그럴 것 같아서. 딱 거리를 두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고 뭔가 여유롭다 해야 되나** 마음이. (...) 그리고 센터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센터 소개로 왔대’하면,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센터 누군데 그랬다더라’ 이런 것도 싫고.

관계에서 ‘간섭’과 ‘관심’의 경계는 모호하다. 관계의 주도권을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쥐고 있지 못할 때, 실무자의 선한 의도의 관심도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 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몸에 밴’ 미진은 실무자들의 지나친 관심이 자신을 욕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기분이나 욕망은 내려두고 “맞춰주게” 된다. 곰곰 역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실제 자신이 쥐고 있는 자원은 별로 없지만, 뭔가를 해줘야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내 삶의 원심력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은 삶의 구심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 자기중심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관계 주체성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미진이 다닌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들은 미진을 아껴주었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려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미진은 “학교 끝나고 곧장 달려가야 했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을

반추하며, 그 때는 왜 그걸 어기지 못했을까 후회한다. 미진에게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지역아동센터에만 매여 있었음을 지금은 안타까워한다. 어쩌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의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분한 프로그램과 관계적 지원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삶의 반경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 몽실 초청 간담회에서 나랑은 “자립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쉽터에 살면 쉽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통금시간이 있고 외박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들 때문에 도리어 쉽터로 인간관계가 한정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자몽 네트워크 모임 때, 커피 동물원에서 나눠준 이야기도 떠오른다. “집단 멘토링에서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동료/사회/커동/실무자와의 관계를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동료 관계라는 말에서 이야기가 멈췄다. 동료 관계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순환 근무여서 만나기 힘들고, 일 끝나고 나면 쉽터에 돌아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동료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화 <거인>을 볼 때 느낌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걸 감수하고 애들이 살아준 거였구나.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기관 안에서도 어떻게 개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된다.” 기관 또는 기관 실무자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에게 장악력으로 해석되거나, 그렇게 작용하기 쉽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남들이 살라는 대로만 살지 않는’은근한 위반의 전략과 자기 힘이 중요해진다. 달리 말하자면, 관계의 동등한 주도권을 갖고, 긴장과 갈등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생존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미진은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멀리 이사 가는 것을 선택했다. 미진의 선택이 센터 관계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녀를 오랫동안 만나왔던 한 사람은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다. 자기중심을 잃지 않도록 거리 설정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거리두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곰곰: 쉽터나 그룹홈 보다는 자립홈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이유는 폭력 피해도 있고, 가정 폭력도 있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나오는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집을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곰곰: (뭐가 준비될 때 자립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경제력이다. 이것이 필수로 있어야 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 살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 어쨌든 자립을 해서 룸메이트와 살면 모르지만, **혼자 살려면 혼자 다 해야 하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어찌 살 것이며, 설거지를 못하면, 청소를 못하면 어떻게 살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 **밥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밥을 떠먹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계속 (일방적인 의존만 키우는) 지원을 받다 보면 계속 나태해져.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오는데, 내가 굳이 뭘 하겠어. 힘드니까 먹고 놀자.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 같아. **지원은 언젠가 끊기는데, 그럼 애는 살 수가 없어.** 굳이 내가 뭘 안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곰곰: 지금은 쫘 사생활 없이 살고 있어. 이상하게 독립된 곳 같으면서도, 독립이 안 된 공간이어서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고,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들은 나의 사생활이 궁금한 거야. 나는 근데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편이야. 이것이 잘 안 맞으니까 내가 최근에도 고민을 말했어. **공동체 생활에 지친다고**. 같이 계속 뭘 하고, 힘든데 뭘 해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간다고 했다고 몰매를 맞을 뻔했어.

미진: (저는 독립하게 돼서) **후련했어요**.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은 있었는데,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쁨이 더 커서, 그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알바라도 하겠지. 할아버지한테 계속 신세지고 있을 수 없고.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그 전에 원래 할아버지랑 살 때 할머니도 같이 계셨는데 제가 방만 나가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말 듣기 싫고, 집에 있기 싫고, 그랬는데. (...) 그냥 뭐 로망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혼자 살면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내가 씻든 안 씻든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해방감? 지금 이사 간 지 한 달 정도. 지금까지는 아직 행복해요.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게.

청소년의 탈가정은 복합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가정 상황이 청소년들을 밀어낸 것(추방)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견디지 않고 스스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동시에 탈출이다. 곰곰은 그 탈출의 주체적 맥락을 읽어야 함을 강조한다. 탈가정에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그렇기에 보호 체계로서의 쉼터나 시설로의 유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홈과 같은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곰곰에게 자립 지원은 “떠 먹여주는” 성격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어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미진에게 자립은 간섭 없는 해방이자 자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기만의 방’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고, 그것이 “로망”이라 할지라도 “이래라 저래라”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 자체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 곰곰은 지금 살고 있는 자립팜을 “독립된 곳 같으면서도 독립이 안 된 공간”이라고 말한다. 같이 의지하며 사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자신은 조금 더 “사생활”을 갖고 싶다. 사람에겐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과 세계와 잠시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숨 고르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이 자기만의 ‘색깔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전제이므로.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에서 나랑은 늘 아버지에게 기가 눌리거나 설득 당했던 유림이 좌충우돌 속에서 자기 선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선택하기는 위험을 가져다줄지도 모르고,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 때로는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승자박이 되더라도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유림이에게는 중요해 보였다. 가해자를 벗어나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선택할 수 있게 된 유림이에게 삶은 다른 빛깔로 다가왔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은 깜깜했다. 미래가 없었다. 선택하는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색깔이 있다.”라고.

나가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정답은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자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장애운동과 달리 청소년의 자립은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가라’는 주문으로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립 개념에 비추어 자립을 지원하다보면 ‘이것이 정말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인가’ 고민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손쉽게 떠올리게 되는 방식 혹은 익숙하게 보아온 방식은 발생한 문제와 딜레마를 봉합하거나, 치위버리거나, 도려내선 안 될 것을 도려내는 식으로 귀결된다. ‘문제 해결’이라 불리지만 사실상 ‘문제 가리기’에 가까운 구태의연한 해법들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바라보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안하고 싶다. 유동하는 삶과 위기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의 양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틀이 단순하고 유일할 수는 없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것이 결국은 여기 모인 우리의 역할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실마리가 하나 둘 발견되면, 그것을 등대 삼아 정답 없는 실천을 일궈낼 수 있다. 위기 청소년들이 녹록치 않은 그 시간들을 온 몸으로 살아내며 한 발자국씩 삶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그 발걸음에 동행하는 데 이 글이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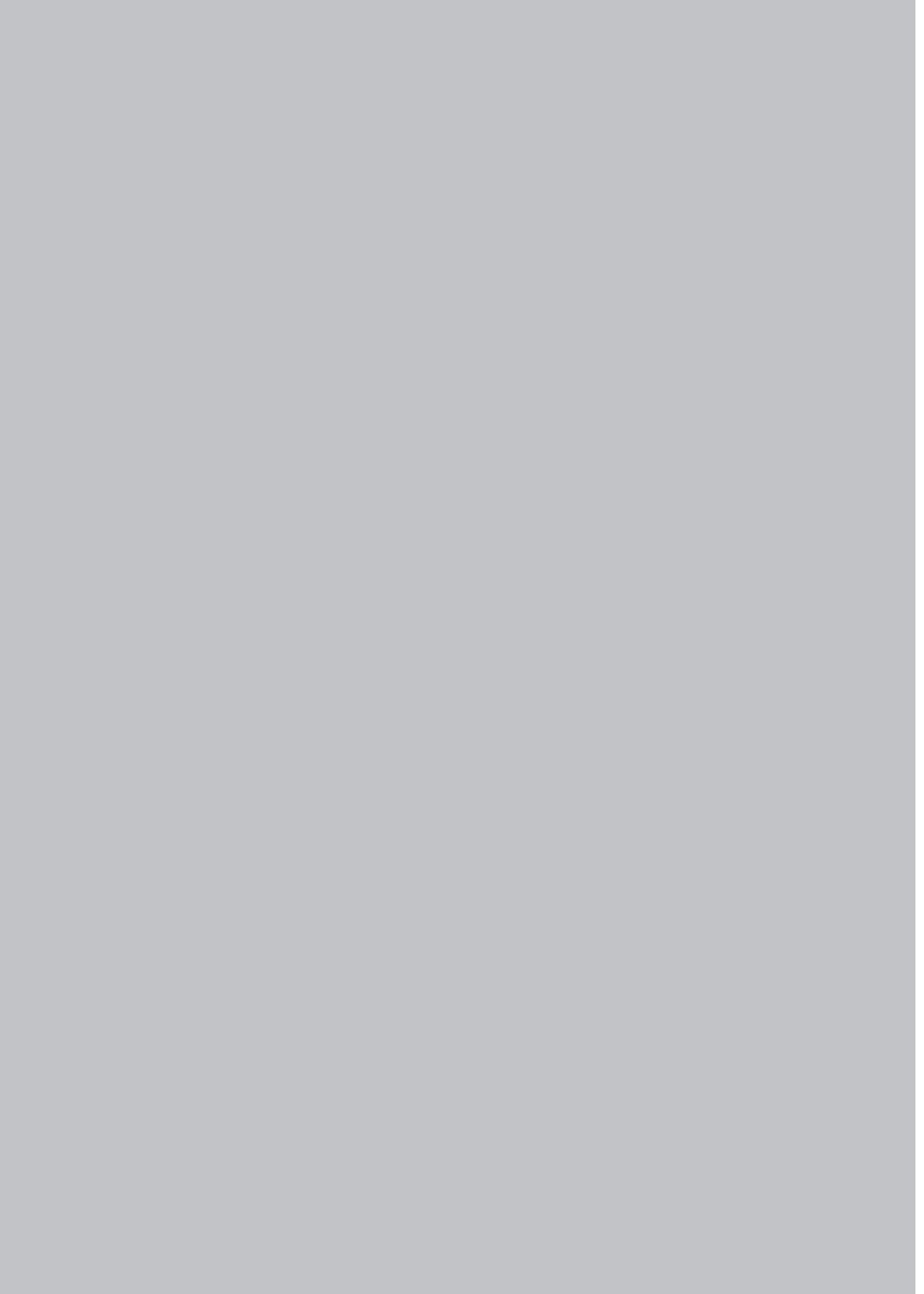
<참고문헌>

- 김도현(2015).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을 넘어 다시 연립으로.” 몽실 초청 간담회 발제문.
- 김은녕(2015). “쉼터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인숙(2007).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진단척도 개발의 필요성 및 내용.”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자료집.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김인숙(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 김인숙(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
- 김인숙·이은영·이민정·하지선(2008).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김인숙·이은영·하지선(2010).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62(1).
- 노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 배주미(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57.
- 배주미(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 변(2015). “가족, 시선의 감옥.” <교육공동체 나다> 잡지 ‘나다Wom’ 7호.
- 조규필(2011). “취약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2).
- 조영선 외(2013).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교육공동체 벗.
- 최일심(2013). “여자 가출 청소년 자립 과정 연구 : 청소년 쉼터 생활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승우(2012). “리뷰: 혁명의 기도가 대학을 휩쓸 때- <어셉티드>, 《혁명을 기도하라》.” 「오늘의 교육」11호. 교육공동체 벗.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2014).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이매진.
- Sonali Shah & Mark Priestley(2011). 『Disability and social change: Private lives and public policies』.
- 이지수 율김(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린비.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청소년 자립 역량 연구



청소년 자립 역량 연구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자립”의 이미지는 항상 「고독한 해방」이었지만, 정말 그럴까?

여성은 언제나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획득해 왔으며, ‘자립’의 이면에는 언제나 ‘공립’이 있었다.

(...)여자들이 만들어 온 강한 연대를 보면, 아아, 우리들은 자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립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계속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¹⁾

“장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석할 때 장애인은 더 이상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Finkelstein, 2011:1)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와 제도, 장벽의 연결망을 드러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²⁾

<(사)함께걷는아이들>의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_자몽(自憐)’참여기관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과 동행하는 몽실(夢實) 프로젝트’는 기존 청소년 자립 개념을 재구성하는 한편,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 자립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한 해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대안적 자립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해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출발한 우리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이내 큰 혼란에 빠졌다. 연구자마다의 세부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자립 척도들 앞에서 드는 이 답답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연 자립 준비도나 자립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한가. 연구자들이 청소년 자립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과 그 척도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이 척도들은 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에서 과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한 건가. 그 척도를 통해 평가받는 것은 청소년인가, 청소년 지원 기관인가, 아니면 사회정책인가. 제시된 자립 과업에 맞춘 교육·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청소년들은 과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든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는가. ‘위기청소년’들의 삶의 다양성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자립 척도들은 보편화될 수 있는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1) 우에노 치즈코(2000), 자립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의자놀이, 최민순 역, 보고서, 96쪽.

2) 소날리 샤·마크 프리슬리(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변화하는 사회 속 장애청소년들의 이야기, 이지수 옮김, 그린비, 41쪽.

그 의문들을 따라 헤맨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글이다. 이 글은 기존 ‘위기청소년’³⁾ 자립 척도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서 청소년 개개인이 성취해야 할 ‘기술’ 또는 ‘과업’으로서의 자립 척도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역량’(capability)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역량은 청소년을 어떠한 삶의 지평으로 초대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존 ‘위기청소년’자립 척도의 한계

1-1. ‘위기청소년’자립 척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자립 척도를 제시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보육원, 청소년 쉼터, 그룹홈 등 시설 거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또는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 지원 훈련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립 목표나 자립 준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검토해 본다.

(1)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아동복지법 38조(자립지원)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38조(자립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⁴⁾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미만의 아동’⁵⁾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성취하여야 할 8대 영역의 기술을 제시하고, 해당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교육·훈련을 점차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중학교 시기에는 자립 예비 사정을 통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8개 전 영역에 걸쳐 자립 준비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문서이면서, 오랜 기간 대리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호가 종결된 이후에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관의 훈련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을 가장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3)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이 유통되는 과정에는 대개 문제, 일탈, 위험, 결핍, 부적응, 장애, 질병 등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삶의 특정한 위기의 국면을 통과하는 있는 이들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다양한 위기의 측면을 ‘위기’라는 말 하나로 집단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러한 분류 자체가 낙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또한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과 긴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고자 한다.

4) 이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관장한다.

5)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뜻한다.

||표1||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8대 영역별 자립 척도⁶⁾

영역	프로그램 내용	자립 준비도에 대한 대표적 사전평가 척도
일상생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준비와 요리하기 • 집 관리 • 의복의 구입과 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식단표를 짤 수 있다 ▶ 집안 정리정돈 방법을 알고 있다 ▶ 의복관리방법을 알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둘러보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공공기관 이용하기 • 민원서류 발급받기 • 지역사회 문화시설 이용하기 • 여행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표 보는 법을 알고 있다 ▶ 지역의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위치를 알고 있다 ▶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기보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 돌보기(위생관리, 규칙적인 생활, 휴식과 여가) • 건강 유지하기(건강한 몸 만들기, 질병 예방하기, 응급처치 등) • 건강한 이성교제(이성친구 교제방법, 성적인 행동과 성관계, NO라고 이야기하기, 부모 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 • 내 마음 다스리기(스트레스 이해와 다스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이 잘 되어 있다 ▶ 성적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담배, 술, 약물 등을 권유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해 알고 있다 ▶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다 ▶ 스트레스 해소법과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감정 알기 / 나의 감정 표현하기 / 분노 다스리기 / 화가 날 때 다스리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화를 내지 않고 충고를 들을 수 있다

6)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아동 대상 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jarip.or.kr를 참고할 것.

<p>사회적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결정 하기 / 현명한 선택하기/ 갈등 대처 기술 • 효과적인 의사소통/ 또래 압력에 맞서기/ 잘못된 관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 동호회 등 지역 모임에 속해 있다 ▶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p>돈 관리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 관리란 • 돈의 세상 1(소비항목과 소비 결정 원칙) • 자립 후 살림살이(나의 평생/ 중기/단기 미래 설계) • 돈의 세상 2(통장 만들기, 보호장치, 돈 늘리기와 지키기) • 365일 돈 쓰기 체험(나의 지출습관, 지출 결정,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 동안 돈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다 ▶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고 있다 ▶ 공과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 ▶ 본인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자립을 위한 저축액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 ▶ 19세부터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p>진로 탐색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에 대한 가치 • 직업의 영역과 특성 • 직업 흥미 영역 • 장래희망과 학업계획 • 취업계획 세우기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후 내가 희망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 적성과 관련하고 꼭 하고 싶은 일(공부)이 있다 ▶ 나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월간, 주간, 일일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p>직장생활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규칙 • 직장에서의 태도 • 직장내 갈등 다루기 •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그만두는 이유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안다 ▶ 직장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 ▶ 모범적인 직원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다시 집 떠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발달과제, 정체성, 상실과 변화에의 적응, 퇴소에 관한 의사소통, 시설에 미치는 영향) • 혼자 살아가기(살 곳 결정하기, 집 찾기, 계약서 쓰기, 이사, 주택의 안전, 주택 관리, 계획하여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자립할 만큼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 자립계획을 세우고 양육자와 함께 토론하였다 ▶ 독립한 후 의지할 사람과 자원이 있다 ▶ 내가 왜 가족과 살지 않는지 안다 ▶ 나는 집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집 안에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알고 수리 방법을 알고 있다
---------------------	--	--

(2)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⁷⁾

배주미가 책임 연구를 맡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취약청소년’대상 자립지원 모형에는 9가지 영역별 자립 목표와 지원 서비스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는 <표2>의 내용을 기초로 ‘취약청소년’을 양육시설·가정위탁·그룹홈 거주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세분화한 뒤, 자립준비단계(기초/심화)→생활전환단계→(준독립생활단계)→독립생활단계 등 단계별로 제공되어야 할 훈련·교육, 기관과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자립준비단계는 청소년들에게 자립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만18세 이후 생활전환단계부터는 지원을 제공하되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원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다.

||표2|| 9가지 자립지원 영역별 목표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자립 목표	지원 서비스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주거 공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지원 • 집구하기 방법 교육
일상생활 기술 및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및 주변 환경 청결 유지 • 건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기술 훈련 • 일정 기간 의료보호 지원 • 건강관리기술 훈련
심리/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심리 상태 유지 • 긍정적인 자아상 • 좌절에 대한 인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지원 • 지속적 개인 및 집단 상담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조화로운 대인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향상 훈련 • 자기주장 훈련

7) 배주미 외(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능력 • 고등교육기관 진학(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지도 • 진학정보 제공
진로(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직업 생활 유지 • 경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설계 및 진로 정보 제공 •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 자격증 취득 및 직업 훈련 • 구직기술 훈련
경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경제 생활 • 신용등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 체험식 경제교육 • 경제관리 자문 및 정보제공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자원 탐색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용 기술 훈련
원가족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과의 문제 해결 • 원가족으로부터의 긍정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지원

(3) 조규필의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조규필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⁹⁾을 토대로 “취약청소년¹⁰⁾의 효과적인 자립준비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개인별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역별 자립 준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기존의 취약청소년 자립 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가 전반적인 자립 준비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영역이 협소하고, 국외의 척도들을 국내 상황에 맞지 않게 그대로 번안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보호나 위탁보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문헌조사와 청소년·실무자 대상 인터뷰 등을 거쳐 7가지 영역 53개 요소를 추출한 뒤, 타당도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자립 척도 문항(7영역, 16요인, 5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8) 조규필(2014), 취약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9) 조규필(2013),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0) 이 연구에서 ‘취약청소년’이라 함은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서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시설(퇴소)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표3 || 자립준비 영역별 구성요소와 대표적 평가문항¹¹⁾

자립준비영역	53개 구성요소	16 요인	대표적 자립준비도 척도 문항
자립의지	미래에 일에 대한 의지, 어려움 극복에 대한 자신감, 문제해결 의지, 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 목표성취 의지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자립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 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진로·직업 역량	목표설정, 미래에 대한 구상, 직업에 대한 관심, 직업이해, 진로결정, 직업선택, 직업기술, 구직기술, 직업유지 및 변경, 직업조사	직업선택 직업가치관 직장적응 직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나는 입사 면접 요령을 알고 있다 • 나는 관심있는 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둘러보거나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경제적 관리	소비, 저축, 돈에 대한 신념, 세금, 신용, 예산계획	신용 관리 돈 관리 소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다 • 나는 광고나 주변사람의 유혹에도 쉽게 충동구매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주거·일상생활 관리	주거계획, 주택마련, 주택관리, 식단 짜기, 음식준비, 음식처리, 영양섭취, 시장보기, 안전 및 보안, 의복관리, 교통 이용	주거 관리 주방 관리 음식 준비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정부의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 • 나는 외출 혹은 취침 시에 문단속 (현관문, 창문)을 잘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올바른 언어사용, 외모관리, 대인관계능력 (이성교제포함), 예절, 지역 사회 참여, 문제해결기술, 스트레스 관리, 시간관리, 자원 활용	사회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외모를 관리한다 •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 (친구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11) 조규필의 자립영역별 구성요소와 자립준비도 척도 문항을 종합하여 필자들이 재구성하였다.

자기보호	개인위생, 술/약물, 의료처치, 성보호, 운동, 건강보험, 심리정서안정	성 보호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피임방법 2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 •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학업관리	학업정보, 학습기술, 학력취득, 배움에 대한 갈망	학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예: 상급학교진학, 편입학, 재입학, 검정고시 정보) • 나는 시험준비 방법과 시험 요령에 대해 알고 있다

(4) 김정연·하지선·김인숙의 <시설 십대 청소년 자립 척도>¹²⁾

김정연·하지선·김인숙은 ‘기술을 습득하여 독립된 상태가 자립’이라는 협소한 자립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자립 척도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10대 청소년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집단을 통한 내용 타당도 입증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자립수준 척도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들에게 자립이 ‘어떤 완결된 상태이면서도 자립이 되어 가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완결된 자립이란 ‘사회에 의미있게 존재하는 상태’로서 상정하고 있음을 규명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자립척도들과는 달리 각각의 영역별 자립 과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12) 김정연·하지선·김인숙(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권 2호.

||표4 || 십대 청소년들의 자립 차원별 의미와 대표적 평가척도¹³⁾

자립차원과 의미	세부 영역과 의미	대표적 자립 평가척도
경제자립 (사회적 존재로의 가능성 타진)	금전관리기술의 습득 (계획할 수 있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돈이 생기면 계획성있게 쓰는 편이다
	직업의 준비 정도 (꿈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후 거주할 곳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생활자립 (조울되는 몸과 삶)	위생관리 (리듬을 타는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결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관리 (자신에 대한 시선의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있다 공부, 친구, 재미있는 일에 대한 시간을 잘 나누어쓰고 있다
관계자립 (교감으로부터 신뢰의 구성)	대인관계 능력 증진 (나누어지는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사회적 자원 활용 능력 증진 (자원의 협의력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서자립 (딱 차는 삶의 구성)	주도성 (주체적인 나로의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취업을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성친구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해졌다
	안정성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좋다', '싫다'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편이다

13) 애초 평가척도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척도에서는 타당도가 낮아 사라진 문항으로는 ▶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 아르바이트나 장사 경험 ▶ 술·담배에 대한 조절 능력 ▶ 내 가족 상황에 대한 공개 ▶ 처음 보는 사람도 웃으며 대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과 지속적 관계를 맺기 어려움 ▶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 등이 있어 흥미롭다. 앞의 논문 참고.

1-2. 자립 척도, ‘수선’이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도달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미 제시된 ‘위기청소년’자립 척도들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그 중 타당한 척도를 가려 뽑고 부족한 것은 채워 재구성하는 작업이 과연 타당하고 가능한가. ‘위기청소년’개개인의 삶을 떠올려볼 때 어떤 기술들은 ‘위기’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을 삶의 기술이기도 하다. 자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통해 사회적 지원 과제를 밝혀내는 것도 불필요하지는 않다. 김정연 · 하지선 · 김인숙의 연구처럼 자기 삶과 연애/사랑에서의 주도성(주체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위기청소년 자립’이라는 세계 속으로 초대하는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 척도 안에 내포된 지향, ‘위기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척도의 존재 자체가 빚어내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존의 ‘위기청소년’자립 척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틀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기존의 자립 척도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타당한가. 대개의 척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대개 ‘위기청소년’이 사회복지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과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활’(自活)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홀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기존 사회의 틀에 맞춰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것, 그리하여 나이도 찬 만큼 더 이상 복지에 의존하지 않는 ‘성인’(이른바 경제활동인구)으로서 살아가는 ‘경제적 자활’에 도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기에 일상생활관리기술의 내용들은 누구의 돌봄도 기대할 수 없는 고독한 하루하루를 연상시키고, 심리정서적 자립은 그 고독을 견뎌내면서 나의 존재가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심리 조절과 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듯 보인다. 또한 자기 보호는 질병이나 폭력으로부터 알아서 ‘몸 조심’하는 것으로 위치되고, 진로 탐색과 사회성 발달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순응의 기술 차원으로 배치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 지원망이나 사회적 의존의 연결망은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존중 · 보호 · 실현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자립에 실패한 쓸모없는 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특혜’이거나 아니면 홀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도구적 전략’이 되어버린다.

둘째, 특정한 기술이 자립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가. 기존의 자립 척도들은 ‘위기청소년’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특정한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로 기술되어 있는 평가 척도들은 청소년 개개인이 스스로 조절 · 관리 · 극복 · 획득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이때 자립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 되며, 의도가 무엇이든 청소년들에게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자립에 실패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당사자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근거로 사용되곤 한다. 물론 어떤 기술은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기술의 습득 자체가 ‘위기청소년’의 자립 준비도나 자립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습득된 기술이나 능력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실제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뿌리내릴 사회적 토양이 필요하다.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없는데, 집을 관리하는 기술만 익혔다고 자립할 준비가 된

것인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데 면접기술과 직장예절을 익혀 퇴소하면 자립은 완결된 것인가. 이 경우 자립 척도라는 것은 실제 자립할 의지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회에는 접근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법적·사회적 지원을 종결하는 ‘알리바이’로만 기능할 수밖에 없다.

셋째, 왜 청소년은 평가하면서 사회는 평가하지 않는가. 기존의 자립 척도는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 또는 사회정책적 과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별도로 제시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처럼 지원 서비스 과제를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지원, 의료보호, 학습지도처럼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과제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¹⁴⁾ 청소년 개개인의 자립 준비 수준은 평가 대상이 되지만, ‘사회정책의 자립 지원 수준’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례로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¹⁵⁾, 취업 지원¹⁶⁾, 진학지원¹⁷⁾, 기타 지원¹⁸⁾ 등의 정책 지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지원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청소년의 자립 또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사회의 자립 지원 역량을 제시한 척도는 발견할 수 없는가. 물론 조규필의 주장처럼, 청소년의 자립 (준비)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면 좋은, 되면 좋을 ‘정책적 함의’일 뿐, 사회정책의 평가지표로서의 위상은 아니다. 청소년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요 개선 대상은 기관내 프로그램으로 좁혀지기 쉽고 사회정책적 과제와 그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은폐되기 쉽다.

넷째, 척도 자체가 잘못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기존의 자립 척도들은 ‘위기청소년’을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립의 과업을 목록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기청소년’을 일상생활에서조차 무능력한 존재, ‘일반 청소년’에게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전제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립 척도만 보면 ‘위기 청소년’은 쓰레기 분리 배출법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분노조절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사회성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는 게으른

14) 이 연구는 72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조사하였고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정책 강화(자립지원 규정 명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부처 내 기금 마련,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 ▶주거공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실제로 제시된 자립 모형은 주거지원과 한시적 의료보호 정도를 제외하면 현장의 요구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기술’이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 입소, 전세주택 지원, 그룹홈 입주 지원 등 외에 자립 생활관 입소, 대학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기회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참고할 것.

16) 직업선택 지원, 청년직장체험 기회 제공, 자격증 취득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취업 알선, 중소기업 청년 인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참고할 것.

17) 폴리텍 대학 우선 입학, 장학금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참고할 것.

18) 지자체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자립 정착금 지급. 지자체에 따라 첫 학기 대학등록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지원이 없는 지자체도 존재).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참고할 것.

이들도 비취지기 쉽다. 그들은 누군가의 삶에 기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주위 자원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자장(磁場) 안에서의 자립은 ‘결핍’된 것을 채움으로써 정상적인 삶의 궤도의 초입에 진입하는 것일 뿐, 결코 존엄한 존재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척도는 인간 존엄의 다층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기존의 자립 척도는 ‘위기청소년’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기술이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이 처한 불평등의 맥락은 물론이고 존엄한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 권리와 욕구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빚고 있다. 자립 척도 어디에도 웃고 놀고 창조하고 표현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립 척도 어디에도 청소년들이 나의 존재, 나의 삶, 내 삶에 부과된 ‘위기’의 맥락, 나의 사회적 위치, 나를 둘러싼 사회구조 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할 기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립 척도에서 ‘위기청소년’은 평가와 정책의 대상일 뿐, 자립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변경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는 단지 자립 척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청소년’자립 지원 정책과 현장이 무엇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지점이다. 아래로부터의 자립생활운동을 펼쳐온 장애인계에서는 개인적 자립 수준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동료모임의 역할이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와 함께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맞서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사업’을 개척해온 여성계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교육-그 내용의 타당성과 비중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자 모임도 만들어져 그들 스스로 자립 지원 과제를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¹⁹⁾ 반면 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에서는 여성주의에서 표현을 빌려오자면 ‘청소년주의’, 좀더 익숙한 말로는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청소년 당사자 모임도, 청소년들 스스로 자립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움직임도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기존의 ‘위기청소년’자립 척도는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화된 자립’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틀, 새로운 실천의 길이 필요하다.

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현장활동가모임 뭉치’는 자신들에게 자활은 ‘▶성매매 여성,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가 아닌 사회일원이 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7),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고할 것.

2. 왜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인가

‘위기청소년’개개인의 자립 준비도나 습득한 자립의 기술이 아니라 ‘자립의 질’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라는 새로운 틀을 발견했다.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많은 학자들의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접근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⁰⁾

2-1. 역량 접근법이란 무엇인가

(1) 아마티아 센의 역량접근법

역량 접근법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삶의 질’ 평가 방법론이자 정치·경제적 프로그램(강령)으로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센은 국민총생산(GNP), 자원, 호용과 같은 척도로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는데,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동등한 삶의 질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센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고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가’이며, 바로 그 ‘역량’의 차이가 삶의 질을 가른다.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원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 예를 들면 장애나 타고난 재능, 전통, 사회적 규범, 법률, 공공인프라, 기후 등이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개인마다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센의 역량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기능’(functionings)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센은 역량을 ‘실질적 자유’이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그러하기에 역량을 증진한다는 것은 곧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이 기회라면, 기능은 그 역량을 통해 실현되고 성취된 ‘존재의 상태와 행위’이다. 삶이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기능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기능이란 반드시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거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건강을 누리는 것도, 풀밭 위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똑같은 역량의 결과라고 볼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굶주리는 사람과 단식하는 사람은 영양섭취에 관해서는 똑같은 유형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식하는 사람은 단식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정치적 목표는 기능이 아니라 역량이 되어야 한다.

20) 아래의 내용은 마사 누스바움(2015), 류은숙(2014), 허성범(2013), Nussbaum, Martha(2007), Robeyns, Ingrid.(2003)을 주로 참고하였다.

(2)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역량접근법은 1986년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서 이루어졌던 센과의 공동연구 기간에 만들어졌는데, 기본적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목적으로 자신만의 독자적 역량 이론을 만들어냈다. 누스바움 역시 ‘이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양으로 따질 수 없는 삶의 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시민들이 역량의 하한선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천적 역량을 타고나는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규명하기 위해 역량의 목록들을 만들었고 그 역량들의 중심에는 ‘품위와 존중’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사회구성원 다수의 선택과 자발적 계약에 따라 등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삶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스바움이 역량을 보통 복수형(capabilities)로 쓰는 이유도 사람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여러 가지이며 집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역량을 ‘기본 역량’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가족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지는 역동적인 사람의 상태를 ‘내적 역량’으로, 내적 역량에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더한 것을 ‘결합 역량’으로 정의한다. 결합역량은 구조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실질적 자유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 때 어머니와의 교감과 대화를 통해 언어 감각을 기본 역량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은 교육이나 가족의 문화자원 속에서 지적·언어적인 ‘내적 역량’을 더욱 개발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자유로운 집필이나 언론 활동을 억누르고 있다면 내적 역량에 맞게 기능할 실질적 기회, 곧 ‘결합 역량’은 실현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누스바움은 나아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이고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기여할 수 있는 10대 ‘핵심 역량’(Central Human Capabilities)을 제안한다. 핵심 역량의 목록들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발견되는 인간의 경험들, 인간의 구체적 경험들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좋은 삶’(good life)을 일구는 필수적인 기초들을 간추린 결과이다. 여기서 ‘핵심’이라 함은 그 역량의 하한선 이하로는 인간다운 삶이 기능할 수 없으며, 역량의 하한선 이상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표이자 국가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 권리를 가운데 ‘기본’이자 필수적인 권리들이 ‘인권’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핵심 역량들의 각 항목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맞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어느 한 역량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역량을 더 많이 보장해주거나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 표5 || 마사 누스바움의 10대 핵심 역량²¹⁾

역량	내용
생명 Life	조기 사망 또는 소진되기 전에 죽지 않고 인간의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을 것
신체 건강 Bodily health	출산관련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좋은 건강을 가질 수 있을 것, 충분한 영양 취하기, 적절한 거처 가지기
신체적 통합 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장소 이동할 수 있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성적 만족의 기회를 갖고 출산 문제에서 선택권 가지기
감각, 상상력,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p>감각을 사용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기. “진정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인간적인 방식이란 적절한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본적인 수학적·과학적 훈련을 포함하지만 단지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선택한, 종교적·문학적·음악적 및 기타의 것을 경험하고 생산하는 일과 사건과의 연결 속에서 상상과 사유할 수 있기. 정치적·예술적인 표현 둘 다의 자유와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보장으로 보호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신을 사용할 수 있기.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기.</p>
감정 Emotions	<p>우리를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재에 슬퍼하기,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그리움·정당한 분노를 경험하기, 공포와 분노에 의해 자신의 감정 발전을 망치지 않기. (이러한 역량을 지지한다는 것은 감정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적 결합의 형태를 지지한다는 걸 의미한다.)</p>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	<p>선(善)의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삶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기.(여기에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p>
관계 affiliation	<p>A. 타인과 더불어, 타인을 향해서 살 수 있기, 타인을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타인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기.(이런 역량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런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제도들과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의미다.)</p>

21) 아래의 번역은 류은숙(2014)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관계 affiliation	B. 자기존중과 모욕하지 않는 사회적 토대 가지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가치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기. 여기에는 인종, 성, 성적 지향성, 종족, 신분, 종교, 민족에 근거한 비차별 규정이 포함된다.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동물, 식물,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
놀이 Play	웃고, 놀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기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A. 정치적: 자기 삶을 다스리는 정치적 결정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정치적 참여의 권리와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에 대한 보호 누리기. B. 물질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동산과 부동산), 타인과 동등한 토대위에서 재산권 갖기, 타인과 동등한 토대위에서 고용을 추구할 권리 갖기, 원치 않는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자유롭기, 노동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일할 수 있고, 실천 이성을 행사하고, 다른 노동자와 상호 인정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2-2. 역량접근법의 강점은 무엇인가

역량 접근법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한 역량들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맞닿아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역량의 실패는 개인적 낙오의 표지가 아니라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특히 차별과 배제의 결과물이다. 더불어 획일화된 수치나 척도로는 측정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구체적인 역량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그것이 타당한가에 있어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센은 역량접근법이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매번 개별적인 목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덜 구체화된 목록을 주장한다. 반면 누스바움은 10대 핵심역량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열린 목록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나의 확정적인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두 사람의 학문적 배경과 활동 반경을 고려하면 좀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센은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일관된 민주적 결정과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다. 반면 누스바움은 ‘좋은 삶’(good life)에 관한 철학 연구에 집중해왔고 최근에는 여기에서 입법적 프레임(constitutional frame)을 접목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누스바움은 센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 이외의 종(species)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의와 역량을 고려하고자 하였고, 인간 존엄성의

개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²²⁾

두 사람의 이론 가운데 어느 접근이 더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역량 접근법이 기존의 청소년 자립 척도와는 다른 역량의 척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첫째,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했으며 실제로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고유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의 개인은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 청소년 개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아가 청소년 개개인의 기본 역량과 내적 역량을 살피되,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맥락을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둘째, 역량 접근법은 시장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과 비시장 영역 모두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존재(beings)와 활동(doings)에 주목한다. 이는 소득이나 부에 초점을 둔 분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중층성과 모호함을 드러내는 데 좀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감정, 관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 등 비시장 영역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경제자립만이 청소년 자립의 유일한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셋째, 역량접근법은 인종이나 나이, 민족, 젠더, 섹슈얼리티, 지리적 위치, 장애, 사회적으로 부과된 책임 등 개인의 다양성들을 인정한다. 섰은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개인적·사회적·환경적으로 유사한 조건에 놓인 개인이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가진 기본 역량과 내적 역량, 그것의 발현에 영향을 끼쳐온 구체적 경험과 맥락에 따라 청소년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역량접근법은 인권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이나 존중의 개념을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 자립 역량을 그저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위치로 초대한다. 나아가 현재 한국사회 청소년의 경제·사회·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역량접근법은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청소년 자립 지원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22)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Robeyns, Ingrid(2003)을 주로 참고하였다.

3. 청소년 자립 역량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법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위기’)청소년들이 자립 역량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상태와 기회를 갖는 것인지를 목록화하여 제시해보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자립 역량의 목록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목록에 대한 독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3-1. 독해를 돕기 위한 안내말 1 : 목록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첫째, 아래에 제시된 역량 목록은 하나의 역량 이론에 기대지 않고 있다. 같은 역량접근법이라고 해도 연구자마다의 주요 관심사나 추상 수준에 따라 제시하는 목록은 다양하다(자세한 내용은 <표6>을 참고할 것). 그러나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시된 목록들 사이에 유사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분명하다. 우리는 앞서 진행된 역량접근법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되, 한국의 (‘위기’)청소년의 삶의 맥락,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새로운 역량 목록을 만들었다. 이때 누스바움과 로빈스의 연구가 큰 도움을 주었다.

|| 표6 || 학자별 역량 목록 비교²³⁾

저자	Swedish Approach(1987)	Alkire and Black(1997)	Nuusbaum (1995, 2000, 2003)	Robeyns (2003)
리스트의 목표	스웨덴에서의 삶의 질 척도	보편적	보편적	서구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
추상도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차원	1. 사망률 2.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보호 사용 3. 고용과 노동시간 4. 노동조건 5. 경제적 자원 6. 교육 자원 7. 주거 조건	1. 생명 2. 지식과 미의 감상 3. 일과 놀이 4. 우애 5. 자기통합 6. 응집력있는 자기결정 7. 초월성 Transcendence	1. 생명 2. 신체적 건강 3. 신체적 통합 4. 감각, 상상력, 사상 5. 감정 6. 실천 이성 7. 관계	1. 생명과 육체적 건강 2. 정신적 안녕 3. 신체적 통합과 안전 4. 사회적 관계 5. 정치적 세력화 empowerment 6. 교육과 지식 7. 가사노동과 비시장 돌봄

23) Robeyns, Ingrid(2003), 앞의 글, 74쪽에서 재인용하여 번역하였다.

차원	8. 정치적 자원 9. 가족과 사회통합 10. 여가와 휴양	8. 다른 종 other species	8. 인간 외의 종 9. 놀이 10.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8. 유급노동과 다른 프로젝트 9. 쉼터Shelter와 환경 10. 이동성 11. 여가활동 12. 시간 자율성 13. 존중 14. 종교
----	--	--------------------------	--	---

둘째, 위와 같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역량 목록은 얼핏 보기에는 (‘위기’)청소년이 아닌, 사람 일반의 역량 목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편적이다. 또한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에 공통점이 더 크지, 차이가 더 크지는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빈곤 청소년의 삶은 부유한 가정의 또래 남성보다 빈곤 여성의 삶과 더 큰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청소년들의 삶과 위치, 불평등을 고려하여 좀더 달리 설명하거나 강조해야 할 역량은 없을까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개별 역량들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지분을 떠받치는 기둥들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존엄하게 대접받기’를 독자적인 역량으로 구분하여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우선 배치하였다. 대개의 청소년 자립 척도들이 일상생활관리나 경제자립을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이는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한국 (‘위기’)청소년들의 위치, 아직 인권의 주체라는 문턱도 채 넘지 못한 청소년들의 위치를 고려한 결과이다. ‘존엄하게 대접받기’는 헌법 기본권 장에서 10조가 그러하듯, 세계인권선언의 1조가 그러하듯, 다른 역량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뿌리이자 지향이면서도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의 역량 이론들이 ‘신체적 건강’차원에서 적절한 주거 확보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율적 공간 갖기’를 별도의 역량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자세히 서술되었지만 (‘위기’)청소년들에게 공간이 갖는 의미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의미와 고유성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아래의 역량 목록은 (‘위기’)청소년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역량의 목록일 수 있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보편적 맥락을 고려할 때 탈가정, 탈학교, 빈곤 청소년이 아닐지라도 모든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으며,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삶에 편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록은 (‘위기’)청소년의 자립 역량 목록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자립 역량 목록이기도 하다.

넷째, 아래의 역량 목록은 (‘위기’)청소년들이 (‘고독한 자립’)을 이루어야 하고 이 고독하고 고단한 성취를 위해 사회복지 지원의 대상으로서만 자리매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체계를 누리고 이에 기꺼이 협력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주체로서 다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시민권의 주체가 되는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자립 혹은 자립의 과정으로 본 것이다. ‘사회적 시민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은 시민·정치적 시민권 혹은 자유권과 무관하지 않다. 자유 없는 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에 불과하며, 사회적 시민권을 배제한 자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전제로만 행사될 뿐이다. 대개 시장에서의 개인적 성취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위기청소년’들에게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복지 지원이 긴급하지만, 시혜로 제공되는 지원은 ‘사회적 시민권’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기’)청소년의 자립 역량은 궁극적으로는 자립(自立_홀로서기)이 아닌, 자립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립의 이면에 자리한 공립(共立_함께 서기)하는 삶과 공립(公立_공공성의 기반 위에 서기)하는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이를 요구하는 권리의 주체를 지향하고 있다.²⁴⁾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이 목록은 ‘자립 역량’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를테면 그야말로 그저 청소년의 ‘삶의 역량’-으로 문패를 바꿔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각 역량들은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가, 아니면 특정 역량에 좀더 특별한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론은 열려 있다. 특정 역량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은 정책과 임파워먼트 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관련된다. 각각의 역량은 다른 역량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위기의 맥락에 따라, 다수 ‘위기’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따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유대, 감각/생각의 주인 되기, 자율적 공간, 경제적 자율성 등의 역량이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여섯째, 아래의 역량 목록은 당연하게도 즉각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목록은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하여 사회(정책)가 어디까지를 내다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기의 현재 삶을 권리의 언어로 판단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령 모든 역량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가라는 자유의 차원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권리의 완전한 보장 속에서만 꽃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은 재난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도, 가족과 직장으로부터 내몰린 거리에서도, 전장에서, 죽음을 앞둔 수용소에서 꽃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존엄이 타인과 외부 환경에 의해 지켜졌느냐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에서조차 무엇을 길어 올리고 있느냐다. 어쩌면 (‘위기’)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 의지나 습득된 기술 따위가 아니라, 존엄에 대한 감각 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존엄에 대한 감각이란 무엇인가, 내 삶은 존엄한가라는 질문으로 청소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이 목록은 기대하고 있다.

24) 몽실프로젝트의 ‘인접 영역 활동가/연구자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김도현(인터넷신문 비마이너 발행인)은 이를 ‘연립’(聯立)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3-2. 독해를 돕기 위한 안내말 2: 역량의 내용 이해를 위하여

아래 제시된 자립 역량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 성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량이 청소년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소 수준의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역량이 성취되었다고 판단될 수는 없다. 이를 테면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 수준의 음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역량이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누구를 통해 왔는가, 그 음식은 내가 원하는 음식이었는가, 그 음식을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먹고 싶은가, 음식과 함께 수치심이 따라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다른 음식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가, 나에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음식문화를 지향하는가, 나의 먹기는 다른 사람과 다른 종(species)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권적으로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완성된다.

이성림 외(2009)²⁵⁾는 센(Sen)의 역량이론과 앨더퍼(Alderfer, 1972)의 ‘E.R.G 욕구이론’과 접목시켜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앨더퍼는 인간의 욕구가 크게 ‘생존(Existence), 사회적 통합(Relatedness), 그리고 성장(Growth)’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존의 욕구는 인간의 다양한 생리적, 물질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통합의 욕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존재로 수용되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장의 욕구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²⁶⁾ 논문은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영역을 아래와 같은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뒤, 빈곤 여성가장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기능’들을 각각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이 실제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 얼마나 성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생존 차원의 기능에는 박탈시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통합 차원의 기능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소속감과 통합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이, 성장 차원의 기능에는 재미, 보람, 전망 등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나뉘어 제시되어 있다.

25) 이성림 외(2009), 센(Sen)의 능력 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권 2호. 이 논문에서 역량(capability)은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다.

26) ‘Relatedness’를 기존 사회관계로의 편입이라는 수동적, 보수적 이해로부터 벗어난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면 ‘사회적 통합’이 아닌 ‘관계성’으로, ‘Growth’를 발달단계론이 가져오는 인간에 대한 제한적 이해로부터 벗어난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면 ‘성장’이 아닌 ‘오늘보다 나은/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삶’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다.

||표7||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영역별 기능: 능력 공간²⁷⁾

생활영역	생존 차원 기능	통합 차원 기능	성장 차원 기능
일과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가능 소득 유지 •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 직업 수치심 없음 • 사회관계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와 보람 성취 • 발전가능성 기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활동 유지 • 경증 질환 치료 • 중증 질환 치료 • 정신적 성장 발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 수혜 •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 건강에 대한 자신감 •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
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주거 확보 • 강제퇴거 염려 없음 • 난방 유지 • 단독 화장실 사용 • 적절한 채광 및 통풍 • 가족 수에 맞는 공간 사용 • 전월세 감당 • 공과금 감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수치심 없음 • 친구, 이웃 초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교육환경 거주 • 내 집 소유 • 투자가치 추구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 세끼 식사 • 다양한 영양소 섭취 • 어린 자녀 식사 챙겨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수치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식품 섭취 • 건강 증진 식품 섭취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벌 옷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 낙인 의식 없는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스타일 추구
여가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 피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친척 교제 • 학부모 관계망 참여 • 자녀 생일잔치 차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문화체험 • 가족 여가 보내기 • 취미활동 하기
자녀 양육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 정서/행동문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어울리기 • 학교생활 지원 • 사교육 지원 • 대학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 지원

27) 이성림 외(2009), 앞의 글, 83쪽에서 재인용.

물론 인간의 욕구 또는 존엄이 과연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구분 자체가 인간 욕구나 존엄의 통합성을 깨뜨리고 위계와 단계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위의 시도를 인용한 이유는 역량을 생존, 통합, 성장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히 역량을 이해할 때 기본적 생존의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최저임금, 최저주거기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적정임금(또는 생활임금), 적정주거기준, 적정생계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은 밥벌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일만으로도 벅차지만 설령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보람이나 전망을 갖기 힘들어 금세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성’이라는 역량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시민권’과 관련한 유엔의 많은 인권 문헌들 역시 기본 생존 차원으로만 국한하여 권리를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와 ‘유엔 주거권 프로그램(UN Housing Rights Programme)’의 <2003 주거권 모니터링 보고서>(Monitoring Housing Rights, 2003)를 보면, 주거권은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8 ||주거권의 7대 구성요소²⁸⁾

구성 요소	내용
점유의 안정성	점유(사실상의 지배)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적절한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상하수 시설이나 에너지 등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경제적 적절성	소득에 대비한 주거비용 부담이 다른 기본적 생필품을 확보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가
최저(적정)주거기준의 확보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가. 추위, 습기, 더위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접근가능성/취약계층의 우선 보호	노인, 아동, 장애인, 비닐집 등 임시적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집단에게 적절한 주거가 우선 보장되고 있는가

28) 최은아 외(2007),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인권오름 제37호, 2007.01.21일자를 참고하여 재구성.

적당한 위치	직장, 학교, 의료기관 등의 사회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문화적 특성의 보호	주택의 건축양식, 건축 정책 등이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유엔이 제시한 주거권의 내용은 단지 비바람을 가릴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 주거권을 이해할 때 기회와 자유, 관계성,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아래 제시된 ‘자율적 공간 갖기’라는 역량이 청소년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그 성취 정도를 판단할 세부 지표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퇴거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대안적 주거공간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그 공간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주거공간은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가.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친구나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수치심 없는 공간인가. 주거의 불안정성이 다른 삶의 기회나 역량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역량의 성취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3-3. (‘위기’)청소년 자립 역량의 목록들

아래의 역량 목록은 하나의 완결된,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추후 보완되어 나아가야 하는 출발의 문서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의 중심축은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와 불평등의 요소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위기’)청소년들의 삶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이 만나야 하고 고민을 익혀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이 목록을 제시하는 이유는 인권에 기반한 역량 접근을 취했을 때 기존의 자립 척도와는 달리 어떤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지, 접근방식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맞출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센과 누스바움이 구분한 기능(function)과 역량(capability)을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역량은 자유(하고 싶음)와 기회(할 수 있음)이면서 동시에 성취(achievement, 되어 있음/가치있는 상태에 도달함/존재와 상태)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나 다수의 청소년 자립 관련 문헌들이 ‘기술/자격/능력’의 의미로 사용하는 역량과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라는 데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혹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가(자유, 원하는 배움의 기회에 물리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기회), 실제로 배웠는가(성취)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개념을 통해 우리는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과 사회정책이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 의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질적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지,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추상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체적인 성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표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자립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것은 이해의 명료화를 돕기 위한 것일 뿐, 각 영역이나 역량 목록들 사이에 경계를 짓는 구분선을 만들고자 함은 아니다. 각 영역은 물론 모든 역량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역량은 다른 역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유대를 경험하고 지지적 관계망에 소속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량이지만, 동시에 정신적 건강이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정치적 힘 등의 역량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이 각 역량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을 고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풍부하게 해석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각 역량의 핵심 요소를 소개하되 세부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피했다. 다만 사업운영의 관행이나 청소년들과 만나는 방식 등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둘 점을 제안한다.

|| 표9 || ('위기') 청소년 자립 역량과 현장에 대한 제언

자립영역	역량	핵심 내용(요소)	자립 지원 과정에서 염두에 둘 점
자기결정과 유대	존엄하게 대접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한 존재로 대접받고 대접하기 ▶ 타인과 동등한 가치로 존중받기 ▶ 자기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힘 갖기 ▶ 주체적인 나를 지향하기 ▶ 자기 결정의 기회와 권한 갖기 ▶ 자기를 존중할 수 있고 모욕하지 않는 사회적 토대를 보장받기 ▶ 사회적 낙인(시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기 ▶ 삶, 시간에 대한 통제권 갖기 	<p>※ 청소년이 가족, 학교, 일터, 학교밖 배우터, 복지시설, 지역사회, 정치 등에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p> <p>※ 청소년이 자립의 목표와 과정, 속도, 시기, 방식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해야 함</p> <p>※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 안에 청소년들의 운영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p>
	사회적 유대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더불어, 타인을 향하여 살기 ▶ 타인과 공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타인과의 상호작용(교감과 지성을 나눌 기회)에 참여하기 ▶ 다양한 관계망을 구성하고 상호의존적 자원망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힘 갖기 ▶ 모임을 만들고 연대하기 ▶ 상실했던 관계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p>※ 사회적 자원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망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나, 흔히 '자원활용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도구적 관계만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됨</p> <p>※ 기존 관계망에 편입되는 사회성 기술 함양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주체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의 함양이 중요</p> <p>※ 청소년이 맺는 관계망의 다양성 확보를 지원할 것</p>
	다른 종 (species)과 공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식물, 자연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 속에서 살기 ▶ 건강, 주거, 놀이 등 삶의 전반에서 다른 종들을 존중하는 방식을 보장받기 ▶ 다른 종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토대 이해하기 	<p>※ 인간과 다른 종과의 유대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알아야 함</p> <p>(예: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의 고통, 핵사고 이후의 질병 등)</p> <p>※ 건강은 위생관리, 심, 생활리듬, 의료접근도, 폭력경험 등 인간세계의 조건뿐 아니라 다른 종과의 공존 방식(예: 미세먼지)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이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야 함</p> <p>※ 자연을 정신력 강화를 위한 대상(예: 국토순례, 등반대회, 극기훈련 등)으로만 환원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 필요</p>

안전과 존엄	생명과 건강 이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 또는 소진되지 않고 살기 ▶ 충분한 영양, 주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 확보하기 ▶ 리듬 있는 일상을 살기 ▶ 좋은 건강 상태 유지하기 ▶ 질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 갖기 	<p>※ 청소년의 건강이나 질병 예방을 유해물질 금지, 규칙적 생활 강제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문제는 ‘낙오자의 몸’이 아니라, 뒤죽박죽된 일상(유동적인 생활패턴)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안에 있음.</p> <p>※ 건강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외부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리듬 있는 일상에 대한 ‘자유와 통제력 확보’차원으로 접근해야 함</p>
	자율적 공간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만한 집에서 살기 ▶ 안전한 피난처 구하기 ▶ 거주형태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공간, 공간 안에서의 자율성 갖기 	<p>※ 청소년의 삶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정서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p> <p>※ 쉼터, 그룹홈 등과 같은 집단생활에서도 자기만의 공간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 필요</p>
	신체적 통합과 안전 확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이동하기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기 ▶ 성 매수,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 성(性), 사랑, 임신, 출산 등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기 	<p>※ 청소년의 이동 시간, 이동 장소, 이동 경로 등에서의 자율성과 이동할 때의 안전성을 모두 존중해야 함</p> <p>※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성/사랑/임신.출산 등에 접근해야 함.</p> <p>※ 공간의 문화나 교육, 일상의 대화 등에서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존중되고 있는지, 이성애주의에 근거한 폭력적 공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p>

<p>감수성의 확장</p>	<p>감각/생각/ 표현의 주인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sense), 생각, 상상력에 깨어있기 ▶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 ▶ 삶의 윤리 세우기 ▶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자기만의 기준과 계획 세우기 ▶ 창조하고 표현하는 기쁨 누리기 ▶ 정치,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정신 사용하기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 갖기 ▶ 삶에 필요한 교육에 접근하기 	<p>※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감각, 상상력, 생각들이 환영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p> <p>※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과 사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나 재난 (가족, 학교, 일, 사랑,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p> <p>※ 교육이 권리라면 특정한 내용의 교육 수혜 (예: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만이 인정되어서는 안됨</p>
	<p>감정에 깨어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착 갖기 ▶ 사랑, 그리움, 애도, 분노 등 정당한 감정을 억제당하지 않고 경험하기 ▶ 공포와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기 	<p>※ 인간이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함. 감정에 대한 공감적 분위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발전, 유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됨</p> <p>※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예: 분노조절) 만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감정들이 억제 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함</p>
<p>시민 으로의 삶</p>	<p>경제적 자율성 갖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가능 소득 유지하기 ▶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삶 살기 ▶ 일상을 영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갖기 ▶ 자기 소득, 재산에 대한 통제권 갖기 	<p>※ 부모로부터 지급되는 용돈은 물론, 수급비, 노동 소득 등에 대해 예측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금 확대, 청소년을 위한 기초소득 보장 등이 중요한 자립 지원정책으로 요구되어야 함</p> <p>※ 훈련, 인턴십,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또는 저임의 노동이 강요되지 않는지 살펴야 함</p>

시민 으로의 삶	일에 대한 통제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구하기 ▶ 유급노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work)에 참여할 기회 갖기 ▶ 인간다운 조건의 일터 보장받기 ▶ 일터의 시간과 문화, 관계, 흐름, 변화 등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 갖기 ▶ 일터의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 맺기 ▶ 나이와 무관하게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 ▶ 일을 통한 전망 갖기 	<p>※ 청소년을 위한 유급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자립 지원정책으로 요구되어야 함</p> <p>※ 임금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 프로젝트, 문화작업, 마을작업, 창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p> <p>※ 일터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순응의 기술을 넘어 동료들로부터 존중받고 동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 감성, 법적 기반 등을 안내해야 함</p>
	정치적 힘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으로 대접받기 ▶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기 ▶ 자신을 대표하고 정치적 모임을 조직하기 ▶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기 ▶ 사회에 대해 말하고 변경을 요구하기 	<p>※ 청소년 인권, 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구조, 정책 변화 흐름 등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알고 말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적 뒷받침이 필요함</p> <p>※ 관련 공공 토론회, 정책제안마당, 지역네트워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조직해야 함</p> <p>※ 청소년 자립 관련 당사자 모임의 형성과 지원센터 설립도 중요</p>
인생예찬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고, 놀고, 여가활동을 즐길 자유 갖기 ▶ 문화적 감성 키우기 	<p>※ 자립이 기술/자격 획득을 위한 고단한 훈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인생예찬도 중요한 삶의 역량임을 인정하고 시간과 자원을 배치해야 함</p>

4. 나가며 : 청소년 자립 역량,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청소년 자립 역량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후속 실천이 요구된다. 우선 제시된 자립 역량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지를 양적·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표의 개발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척도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임의 목록과 정책 과제를 이끌어내는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다. 세부지표 마련과 함께 일자리 정책, 주거 지원 정책, 친권 제도 등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억누르는 제도적 장벽을 해체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 정책과 법률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후속 과제로 남겨져 있다.

사회정책의 변화가 그저 목록이나 세부지표의 완성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자립 역량의 실현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조직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내적 역량’과 ‘사회적 영향력’(이른바 세력화)을 강화하는, ‘임파워링’(empowering)²⁹⁾ 실천이 필수적이다. 소날리 샤와마크 프리슬리(2014)가 장애에 대해 주장했던 것처럼, 청소년 자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드러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 장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들에게 어떤 내적 역량이 개발되고 확보되어야 하는지(개인 내적 임파워링), 가족이나 또래관계, 사회적 고립 등 청소년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어떤 변화에 도전해야 하는지(관계적 임파워링), 청소년들의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정치·사회적 임파워링), 이를 위해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기관과 활동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우리의 후속 과제로 남겨져 있다.

산더미처럼 남겨진 후속과제들 속에서도 우리의 한 가지 지향이자 출발점이 무엇인가는 분명하다. 정책과제의 발굴도, 도전 과제의 발굴도, 임파워링 실천의 과정도 청소년 당사자들의 세력화와 교육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1991년 복지 삭감으로 생존의 위협에 놓인 가난한 여성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켄싱턴의 복지권조합(Kensington Welfare Rights Union)은 ‘빈민 스스로 빈민을 조직한다’는 원칙에 기반하여 빈민대학, 경제인권학교 등 다양한 정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치교육 없이는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 지도력을 형성하는 일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하고 서로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조합의 교육담당자인 윌리 뱃티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29) 국내에서 흔히 ‘역량강화’로 번역되고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이 글에서 사용되는 ‘역량’(capacities)과 개념상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입장에 따라 (개인적) 역량 강화, 권한 강화, 자력화, 세력화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역량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행동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로 ‘임파워링’(empowering)이란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람들은 타이타닉 호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잡으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그 의자들을 어떻게 타이타닉을 벗어날 수 있는 구명보트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시기마다 불거진 문제들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오늘날 빈부격차를 증대한 문제로 본다면, 가장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의 말은 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에 이렇게 변안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수 없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립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교육의 장을 조직하는 일로부터 우리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배(2008), 일본의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에 관한 분석 - 노동복지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6권 3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김도현(2015),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을 넘어 다시 연립으로, 몽실프로젝트 '인접 영역 활동가/연구자 초청 간담회'비공개 자료집.

김정연·하지선·김인숙(2011), 시설 입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 입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권 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인숙 외(2008),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김희성(2004),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권 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류은숙(2012), [인권문헌읽기] 여섯 개의 P(Six Ps):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에 관하여, 인권오름 303호, 2012년 06월 19일자.

류은숙(2014), 마사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인권오름 387호, 2014년 04월 03일자.

마사너스바움(2015),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상연 옮김, 돌베개.

미치 마가미(2011), 누스바움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아동 빈곤과 능력 접근, 교육철학연구제33권 제4호, 한국교육철학학회.

박선아·김성한(2009),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배주미 외(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범용(2006), 인종을 가로질러 가난한 자들을 지도부로: 미국 켄싱턴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1>, 인권오름 제12호, 2006년 07월 11일자.

소날리 샤마크 프리슬리(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변화하는 사회 속 장애청소년들의 이야기, 이지수 옮김, 그린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7),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우에노 치즈코(2000), 최민순 역, 자립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의자놀이, 보고서.

이성림 외(2009), 센(Sen)의 능력 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권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조규필(2013),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조규필(2014), 취약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최은아 외(2007),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인권오름 제37호, 2007.01.21일자

허성범(2013), 역량과 인권: 센과 누스바움, 시민인문학 25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Nussbaum, Martha(2007). Human Rights and Human Capabilitie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20.

Robeyns, Ingrid(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2003.

SEN, AMARTYA(2005).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 2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밖에서 자립 찾기

발 간 인권교육센터 ‘들’
발간일 2016년 2월 15일
후 원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디자인 위영서

문 의 인권교육센터 ‘들’
dlhredu@gmail.com | 02-365-5412

